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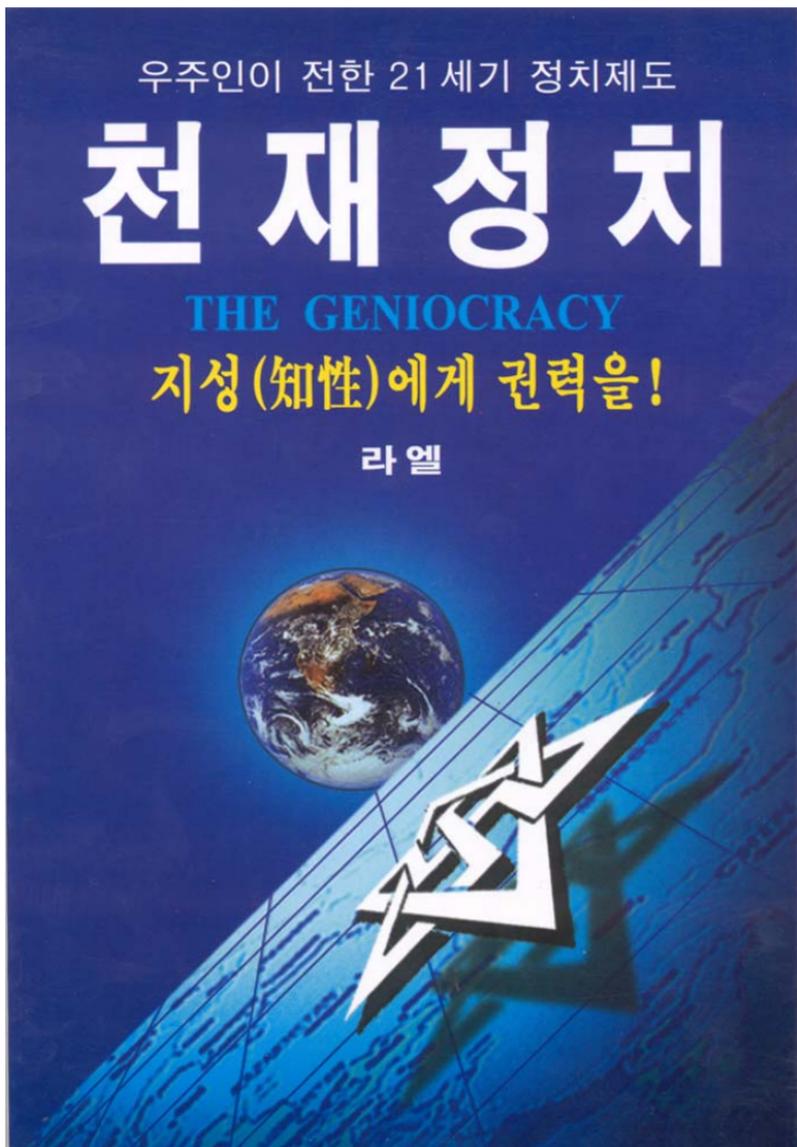
우주인이 전한 21 세기 정치제도

# 천재 정치

THE GENIOCRACY

지성(知性)에게 권력을!

라엘



Claude Vorilhon "Rael"

# 천재정치

THE GENIOCRACY

## Copyright © The Raelian Foundation 1998

이 책의 저자 라엘은 '1988년 저작권, 의장권 및 특허권에 관한 법률(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에 따라 이 책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이 책의 어떠한 부분도 재출판되거나 검색시스템에 저장되어서는 안 되며, 판권소유자 또는 저작권소유자의 사전 허가없이 판매 또는 이익취득의 목적으로 전자적 또는 기계적 복사, 사진복사, 인쇄, 녹음, 기타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타인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타인에게 무료로 전달할 목적으로 하는 복사는 어떠한 종류든 허용되지만 종이인쇄복사의 경우 개인용 프린터를 이용해야 하며 전문인쇄회사에 의한 복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ORIGINAL TITLE

“LA GENIOCRATE”

(THE GENIOCRACY)

Fondation Raelienne 1978

This book is published in Korea by direct arrangement  
with International Raelian Movement.

Published by: Messenger Corp.

K.P.O.Box 399, Seoul, Kore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국제 라엘리안 무브먼트를 통해  
저자와 한국어판 번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  
하고 완역 출판한 것입니다.

“결집되어 조직화된 충분한 다수의 지성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우주에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 테이야르 드 샤르댕 (Teilhard de Chardin)



# 머리말 1

본서의 저자 클로드 보리롱 라엘(Claude Vorilhon Rael)은 1946년 9월 30일 프랑스의 앙베르에서 태어났다. 카레이서 및 스포츠카 전문잡지의 기자 및 발행인으로 활약하던 중 그는 1973년 12월 13일 프랑스 중부지방에 있는 클레르몽 페랑의 한 사화산구에서 외계로부터 온 우주인 엘로힘을 만났다. 6일간의 만남에서 그는 엘로힘으로부터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전해달라는 메시지를 위탁받고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 1975년 스위스에 국제 라엘리안 무브먼트(International Raelian Movement)를 창설했다.

그후 저자는 세계를 순방하면서 강연 및 신문, 라디오, TV 인터뷰를 통한 메시지의 보급에 전념하고 있다.

우주인 엘로힘이 전한 메시지를 수록한 저자의 책은 모두 5권으로 출판되었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진실을 알리는 책」(The book which tells the truth), 「우주인은 나를 그들의 행성에 데려갔다」(The extra-terrestrials took me to their planet), 「우주인을 맞이하자」(Let's welcome the extra-terrestrials), 「감각명상」(The sensual meditation), 「천재정치」(The geniocracy)

이중 처음의 3권은 한글로 완역되어 「우주인의 메시지」 I, II권으로 출판되어 있다. 본서는 「천재정치」의 한글 완역본이다.

AH53(1999)년 5월 1일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

# 천 재 정 치

## 목차

머리말 1 .....	5
서문 1 .....	8
서문 2 .....	11
머리말 2 .....	15

## 제1장 천재정치의 원리

1. 통치형태의 변천소사 .....	19
2. 천재에게 권력을 주는 방법 .....	24
3. 원시적인 민주주의 : 평균정치 .....	26
4. 천재정치 : 선택적 민주주의 .....	29
5. 천재정치와 파시즘 .....	31
6. 천재정치와 엘리트주의 및 귀족정치 .....	33
7. 천재정치의 수립방법 .....	40
8. 천재정치의 기본목적 .....	46
9.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의 수립 .....	47
10. 천재정치와 합의제 .....	53
11.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 구성 .....	59
12. 지역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세계천재정치를 향하여 .....	61

## 제2장 지구를 개화와 행복의 세계로 만들기 위한 제안

1. 서문 .....	66
2. 자신이 바라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	68
3. 소득격차의 시정에서 화폐의 폐지로 .....	78

4. 배급경제 .....	80
5. 노동과 매춘 .....	82
6. 미래의 노동자 : 전자로봇 또는 생물로봇 .....	84
7. 화폐의 폐지 즉 진정한 가치에로의 복귀 .....	92
8. 가장 위험한 종파(Sect) : 군대 .....	96
9. 어떻게 군인을 입 다물게 할 것인가? .....	104
10. 유전증명서 제도의 창안 .....	107
11. 교육 .....	109
12. 여성의 지위와 발전도상에 있는 사람들 .....	112
13. 인구문제 .....	116
14. 재판 .....	118
15.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청소년 .....	120
16. 과학센터의 개설 .....	122
17. 과학의 은혜에 의한 자연으로의 복귀 .....	125
18. 지구어의 창출을 향해서 .....	128
19. 과학의 보급 .....	130
20. 자유와 자주권의 존중 .....	135
21. 여론의 규격화 : 가장 큰 위험 .....	141
22. 황금시대 .....	144
23. 지극히 중요한 부언 .....	147

### 제3장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의 수립

1. 지구의 천재들을 향한 호소 .....	149
2.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의 활동계획 .....	157
3.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의 자원 .....	159
4. 마지막으로, 제네바에 최초의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를 수립하는 일 .....	160
<b>참고문헌</b> .....	163

## 서문 1

미셸 데디에(Michel Deydier)

세상의 여러 요소 중에서 지성은 가장 순수하며 또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인간은 자신의 두뇌와 지성의 활동에 따라 자신의 세포들을 조직화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어느 집단에 소속될 때 그의 세포들은 새롭게 조직되고 실패의 경험을 통해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것은 사회심리학적으로 볼 때 통합되려는 정신의 표현이다.

사회학 가운데는 생물심리학적 요인이 존재하며, 동물이나 인간에게는 신체적 구조의 차이에 따라 의식이나 사고의 수준에 서로 다른 계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런 비상식적, 비이성적인 사고들은 신경심리학의 실험실 안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수 년전부터 생명의 구조에 관한 지식들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과학적인 지식은 은밀한 '요리의 비결'같은 것이 전혀 아니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클로드 보리롱은 그의 경이적인 노작인 이 책에서 우

리 문명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여러가지 주제들을 분석하고 또 종합하고 있다.

이 책에는 개인의 심리적 개화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매우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행동의 여러 원칙들과 배경에 관한 기술은 생물심리학적 필연성과 놀라울 만치 일치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도 나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이 심리적 억압의 해방과 창조성의 개발을 통해 각자 바라는 대로 정신적 충실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개화센터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지지하고 싶다. 이 개화센터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자신의 잠재능력과 적성 및 취미의 개발을 통해 우리들이 결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화가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성과는 아니다. 어린이로부터 청소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기파괴, 공격성, 범죄, 가학증, 심리적 억압 등의 부정적 경향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발견해내는 일도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며, 따라서 완전한 치료법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범죄 또는 공격적인 행위가 표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풍부한 내용을 여기서 내가 이것저것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독자들은 자신의 사고능력을 통해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과 천재와 사랑이라는 실로 짜여진 옷과 같은 이 책의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당신은 '세계 천재정치 운동'과 마주치게 될 것이며, 그 때 당신은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다.

## 서문 2

마르셀 테루스 (Marcel Terrusse)

클로드 보리롱이 저술한 이 책은 나를 열광시키고 감동시켰다.

우리들은 모두 자신의 장래가 불확실한 것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의 이러한 불안을 일소시켜 준다. 왜냐하면 이 책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반문제의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종래의 정치가들이 이 행성의 관리와 정비 및 조직화를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우리는 이 중요한 일들에 대한 선택이 보다 책임 있는 레벨에서 행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들은 과학기술사회의 발전을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집중시켜 왔지만 옛날 그대로의 관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및 정치적 구조는 점점 더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

우리의 이 행성은 전 인류의 운명이 걸려 있는 하나의 마을과 같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사실을 자각하고 관용과 사랑의 마음을 기르며 공격성과 광신을 진정

시키는 사람들의 노력에 인류의 생존이 달려 있다.

인간의 충동적 공격성에 기인하는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권력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 과학에 가치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지식은 언제나 바람직한 것이며, 이 지식을 이용한 유익한 발견을 환영할지 아니면 거꾸로 악용될 위협을 두려워할지는 사람들의 이해와 의지에 따른 정치적 결정에 달려 있다. 실제로 그것은 정치적 및 사회적 선택의 문제이며, 나아가 관용과 박애주의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변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신의 무분별함이나 비상식성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천재에 의해 통치되는 황금시대를 맞이할 수 있으려면 이런 냉철함, 용기, 실용주의, 그리고 지성이 정말 필요하다.

나는 선택적 민주주의에 관한 모든 제안 및 천재정치 사회의 건설 계획에 깊이 감동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천재정치 운동에 전면적으로 찬성하고 싶다.

이 책을 읽고 나는 우리들이 현재 빠져 있는 악습의 증명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와 관습의 전면적 변혁을 제안하는 것으로 끝마치는 논리전개의

명확함과 내용의 간결함에 감명받았다.

이 책은 보통을 뛰어넘는 지성을 지닌 한 인간의 사색의 산물이며, 그 내용은 최고로 냉철한 두뇌가 이루어낸 놀라운 총합작용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 자기 나라만 생각하거나 두꺼운 금고의 견고한 벽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인간들의 사사로운 물질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인류애를 통해 인류의 진정한 이익만을 옹호하려는 배려인 것이다.

정치지도자들이 냉철한 선택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그들은 타인에 의해 조종되고 정상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민중의 대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을 읽고 기분이 상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전체의 이익 앞에서 사사로운 감정은 얼마만한 중요성을 갖는 것일까?

클로드 보리롱의 이 책은 희망의 책이다. 그의 말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의 기쁨은 얼마나 클 것인가? 또 권력이 뛰어난 천재들의 지성과 결합되어 진정한 가치를 행사하는 사회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을 때 그 평온함이란 진정 어느 정도일 것인가?

우리 인간은 자기 운명의 지배자이다. 따라서 인류가

수 천년간 겪어 온 잘못된 경험을 결산하고 이제 최고의 이성애 의해 통치되는 황금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아닐까? 그것이야말로 인류의 진정한 진보가 아닐까?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하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

클로드 보리롱의 '천재정치'는 나에게 있어 사랑과 천재와 희망의 책이다.

## 머리말 2

라엘(Rael)

이 책은 1939년부터 1945년에 걸쳐 일어난 세계대전이 정말로 최후의 것이고, 히로시마의 원폭이 똑같이 무고한 민중을 살육한 최후의 것이기를 바라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 대해 씌어진 것이다. 또 자신들의 발명품이 정치 및 군사적인 권력자에 의해서 살인무기로 악용되는 것을 보고 진저리를 치고 있는 과학자, 천재 및 발명가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전면적 파괴의 끊임없는 위협이나 불안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세계의 운명을 책임지고 떠맡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란 가장 상상력이 풍부하고 우리 문명에 어울리는 새로운 세계기구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 즉 과학자, 천재 및 발명가들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은 과학자도 천재도 발명가도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씌어진 것이다.

통치한다는 것은 앞을 내다보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 것도 내다볼 수 없는 위정자는 통치자로서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째서 위정자는 무능한가. 그것은 그들이 민주주의적으로 선출되어 그 지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민주주의는 선거민의 지성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에 넣고 있지 않다. 거기에서 한 사람의 아인슈타인의 목소리는

우둔한 무리의 목소리에 당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보다는 우둔한 무리 쪽의 사람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우둔한 독재 밑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재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보려면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원시적인 민주주의는 ‘평균정치(mediocratie)’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평균적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가장 다수파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mediocratie는 평균이라는 뜻의 라틴어 *medius*로부터 나왔다.)

천재정치란 선택적 민주주의에 의해, 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과 같이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평균보다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술자들 중에서만이 아니라 노동자나 농민들 가운데에도 천재는 존재하는 것이다. 때가 늦기 전에 인류의 운명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것이다.

평균보다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세계가 통치되기를 바라는 것은 과연 졸렬한 생각일까?

세상의 종말을 알리기 위해 천년지복설의 예언자들은 어느 시대나 존재해 왔지만 그들은 대중을 매료시킬 과학적인 논거는 단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나 지

금 이러한 ‘천년지복설’의 예언자들은 탁월한 과학자들과 완전한 무신론의 철학자들이며 나아가서는 국가원수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인간은 자기 행성의 전 생명을 멸망시키고 또 가공할 만한 핵무기의 대폭발에 의해 자멸하기에 충분한 힘을 수중에 지녔기 때문이다.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 이런 일은 이전에는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이 기회를 살리고자 나는 강력하게 호소하고 싶다. 우리들 인류라는 종이 살아남기 위해 책임을 질 기회, 동시에 그것은 사랑과 우애와 개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문명인 ‘황금시대’로의 입구에 인간이 도달하는 기회이기도하다.

이제부터 본론을 읽으려고 하는 당신은 우리에게 이어질, 어쩌면 이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세대에 대해서 이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한 사람이다. 무관심한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책을 읽어 주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생과사가 걸려 있는 당신 자신의 문제이니까!

제 1 장  
천재정치의 원리

## 1. 통치형태의 변천소사

“공화국에 학자는 필요 없다.”

라보아제(Lavoisier)의 판결문구

“사람마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

성서 예레미야서 10장

인류가 탄생된 이래 대체로 어떻게 통치되어 왔는가?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최초에는 가장 힘센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법을 따르도록 물리적인 압력을 가했다. 강자는 그 힘으로 부와 재산을 축적했다.

강자는 그의 자식에게 부를 상속하고 이렇게 해서 그의 통치는 유산자의 통치로 변모해 갔다.

유산자는 통치하면서 그의 신하 가운데 가장 지성적인 자들이 발견한 모든 지식을 획득했다.

다음으로 유산자들은 전문지식인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들의 지식을 전체 민중들에게 보급시키

지 않도록 주의했다.

이러한 전문지식인들은 세습의 우월성을 일반에게 민도록 하여 민중을 착취, 억압, 학대해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일반 민중은 마침내 이러한 전문지식인을 타도하고 통치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전문인을 민주적으로 투표하게 되었다.

이것이 ‘권력의 자리에 앉은 지식인’이었다. 그러나 지식은 지성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잘 돌아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컴퓨터라도 해낼 수 있는 간단한 기억작용에 불과하며 지식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치하는 지식인’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천재들의 발명품을 이용했으며 선의의 발명가들의 작품을 살인적인 목적에 이용했다.

다음으로 ‘통치하는 지식인’들은 관리의 기술을 가르치는 대학을 창설하였다. 말하자면 ‘고급관료’의 양성인 것이다. 이들 고급관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발명품을 이용해서 통치하는 법을 배웠다.

권력의 자리에 앉은 천재가 권력의 자리에 앉은 지식인을 대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교가 제공하는 것은

천재와는 무관하고 모두 머리 속에 가득 채워 넣은 기억이 외엔 아무 것도 아니다. 양식과 지성을 획득하는데 대학을 졸업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라는 종의 생존을 위협에 빠뜨리기 위해 권력은 이용할 수 있는 발명가들을 배출했다. 그리하여 이렇게 이용되고 배신당한 발명가들은 자신의 발명품이 무고한 민중을 살상하기 위해 쓰이는 것을 보고 비탄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사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는 없다.

인류를 지금까지 진보시키고 또한 항상 진보하도록 만들 유일한 사람들에게 마침내 권력을 맡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들은 통치할 때에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갖고 있던 체구가 건장한 야만인이나 유산자, 또는 전문지식인, 정치가, 군인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던 유일한 사람들, 즉 천재들이었다. 만약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발견이 나쁜 데 이용될 줄 알았으면 그는 결코 그것의 이용을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군인이라는 조직화된 야만인들이 이미 하늘을 나는 요새로 히로시마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천재들이 그들에게 가해진 정치적, 군사적 압력을 거부하고, 독립과 비폭력의 사상을 확인하고 결집하여 그들의 발명에 대한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오직 자신들뿐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리하여 인류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 즉 천재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통치형태의 발전>

통치 형태	야만인	유산자	유산자	전문지식인	군인	천재
통치의 근거	힘	야만인에 의해 축적된 부의 상속,이것으로 자신들을 존경하도록 만들기 위한 힘센자들을 고용	지식의 용의 주도한 보유, 즉 독점함으로써 고용된 힘센자들에 의한 보호를 더욱 강화	압제자인 유산자를 타도한 민중에 의해 선출	조직화된 폭력에 봉사하기 위해 지식을 이용	지성
특별한 이력	원력	부	부	지식, 즉 공개가능한 부	무기의보유, 질서가 문제될때는 항상 젊은이들을 소집해 세뇌활동	양식, (良識) 상상력, 총체적 사고, 즉 천재

## 2. 천재에 권력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처럼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성서 다니엘서 12장 3절

인류는 각 세포가 각 개인에 상응하는 하나의 인체에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세포는 이동하는 음식물을 소화하는 기관의 일부가 된다. 또 어떤 세포는 몸이 걸어야 할 방향이나 음식물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는 부분, 즉 두뇌의 일부를 형성한다. 뇌세포는 결정을 내리는 작업에 가장 적합하므로 그 기관(뇌)에 위치하는 것이지, 다른 세포들이 선거한 결과 뇌세포를 두뇌에 위치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있어서는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발에 가 있어야 할 세포가 두뇌 속에 와 있는 사태가 우리가 직면한 제 문제를 설명한다.

뇌의 세포가 발의 세포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는 말이다. 발이 없는 뇌는 저 혼자 움직일 수 없으며, 또한 뇌가 없는 발은 걸어간 방향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마치 어리석은 인간이 종종 뇌의 지시 없이 발을 멋대로의 방향으로 걷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같다. 따라서 사고하고 반성하고 상상하는데 있어 다른 자들보다 뛰어난 자들이 사회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인체가 뇌세포를 몸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과 같다.

천재로 하여금 인류에게 봉사하게 하는 것, 여기에 천재정치의 의의가 있다.

### 3. 원시적 민주주의 : 평균정치

“아무도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진실은 왜곡되지 않는다.”  
간디(Gand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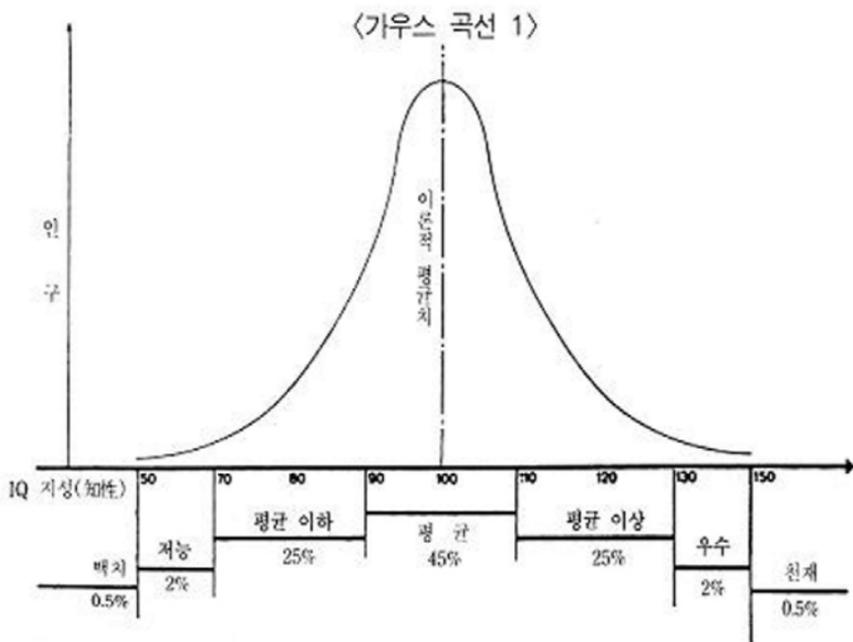
현재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평균정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제일 수가 많은 것이 평균적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며, 따라서 그들의 결정이 투표 시에 승리하기 때문이다.

매우 잘 만들어진 시험결과로서 ‘가우스 곡선’을 보면 알 수 있다. 실제 인구 중에서 겨우 0.5%가 극히 우수한 천재들인데, 이러한 천재들의 소리는 같은 0.5%를 차지하는 백치들의 소리에 의해서 투표 시에 상쇄된다. 2%를 차지하는 우수한 사람들도 같은 2%를 차지하는 저능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소리가 상쇄된다.

평균보다 10~30%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들의 의견도 역시 같은 인구의 25%를 차지하며 평균보다 10~30% 낮은 지성을 가진 사람들, 즉 ‘평균 이하’의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상쇄되

어 버린다.

그 결과 평균적 지성을 가진 사람들, 즉 평균적 (mediocre, 이 mediocre는 평균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medios에서 나왔다)인 사람들이 투표 때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 어쨌든 그들은 45%나 되니까. 이상이 민주주의 형태가 실제로는 평균정치에 불과한 이유이다.



#### 4. 천재정치 : 선택적 민주주의

“절대로 선언을 철회하지 않는 집단은 진리보다도  
그들 자신을 사랑한다.”

J.쥬베르(Joubert)

천재정치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즉 전체 인간에 대해 그의 지성을 측정하는 과학적 테스트를 실시하여 타고난 지성(졸업증서의 수가 아니고)이 평균보다 10%이상 우수한 자에게만 선거권을 주고, 타고난 지성이 평균보다 50%이상 우수한 자들(천재)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실제로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다. 테스트를 실시하여 개인의 지성을 측정하는 과학적 척도는 대학을 졸업했다든가 많은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우수하다고 할 수는 절대 없다. 여기서는 농민이나 노동자, 기술자가 전

부 평등하게 취급된다.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천재들은 어떤 사회계급, 인종, 성으로부터도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선택적 민주주의인 것이다. 천재정치 of 가우스 곡선이 보여 주듯이 이 천재정치 시스템은 천재, 우수한 자들, 평균이상의 사람들의 소리가 평균이하의 사람들(백치, 저능, 평균이하의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 상쇄되는 것을 방지한다. 따라서 투표 시에 의사표시를 하는 자들은 인구의 27.5%를 초과하는 일이 없게 된다. 오해 없이 강조해 두고자 하는 점은 천재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곧바로 정부의 구성원이 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에 입후보할 권리를 준다는 것이다. 전 인구 중 가장 높은 지성을 가진 대표자들이 천재들의 그룹 가운데 정부를 조직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천재정치란 민주적인 통치시스템이다.

## 5. 천재정치와 파시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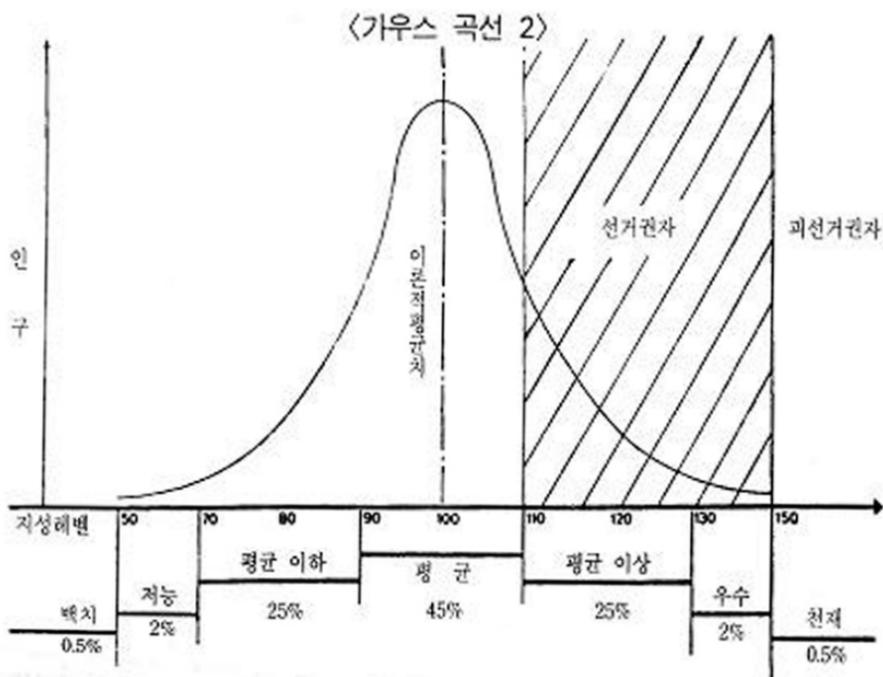
누구나가 ‘파시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적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알아보자.

“파시즘 : 일당독재”

천재정치를 파시즘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천재정치의 체제아래서는 좌우 양쪽 어느 편에 속하는 천재도 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정치적 색채를 띤 모든 당파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파시즘’은 자기 당 이외의 다른 정당의 존재를 금지하고, 자당의 멤버에 의해서만 정부를 조직하는 단일정당의 존재로서 특징 지워진다.

현재 ‘파시즘’은 중공, 소련, 칠레 등의 나라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나라에서는 단일정당만이 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천재정치란 통치시스템으로서 단일한 정치적 색채만을 띠는 것이 아니다. 이 통치시스템 하에서는 모든 정치적 색채가 허용된다.



## 6. 천재정치, 엘리트주의 및 귀족정치

“인간은 지구 전체보다도 사상 쪽에 더 마음이 끌린다. 즉 파멸이나 죽음보다도 사상을 더 두려워한다.”

버트란드 러셀(Bertrand Russel)

현대에는 지성이란 부끄러워해야 할 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존재해 온(지금도 존재하는) 명백한 부정을 앞에 두고 인간은 좀 더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만약 인류가 완전한 자기 실현과 자기개화의 기회를 평등하게 갖는 것을 우리 문명이 희망하고 있다면, 완전히 절대적이고 지고한 평등이란 구실아래 백치의 의견보다 천재의 의견을 중시하지 않는 상황을 인식했을 때 우리들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시적 민주주의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기실현과 자기개화의 기회평등이라는 개념 자체는 매우 좋지만, 의견 표명자의 지성 레벨을 고려하지 않는 투표의 평등에 대해서는 결코 “아니요”라고 말해야 한다.

인간은 법아래 평등하게 태어났으나 능력에 있어서는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능력에 있어 인간은 나면서부터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왜 거부하는가? 확실히 개인의 개화에 있어서 환경이 끼칠 수 있는 영향은 크지만, 똑같은 환경하에서는 천재는 천재, 백치는 백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전체 아이들 가운데 천재나 극히 우수한 아이들에게 각자에 적합한 환경을 주어 양육하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지만 이것이 특별한 광석, 즉 천재의 가치를 강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지성적인 인간들을 비난하기 위해, 세계의 지배자가 되려고 한다든지 지구를 파괴하고자 하는 미친 천재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세계를 파멸시킬지도 모르는 무기를 축적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지도자들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천재가 아니다.

천재정치는 한 사람에 의한 독재가 아니며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나온 수백 명의 천재들에 의해 구성되는 세계 기구의 창설을 의미한다.

우리는 매일 천재들의 상상력과 사색, 노고의 산물로 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들은 하루 종일 우수한 두뇌

를 가진 사람들의 힘에 의해 발명된 물건들을 사용하고 있다. 전구로부터 텔레비전, 자동차, 자전거, 수도꼭지, 선풍기, 녹음기, 타자기, 피아노, 스테레오 채널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해주는 이러한 물건들은 모두가 자신의 상상력에 의해 주어진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덕택이다.

아무리 지성이 열등한 사람들도 이들 물건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게 되는가는 몰라도 사용법은 알고 있으며,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이 개선되었다는 점은 알고 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천재정치란 말하자면 이 물건의 레벨에서 행해지는 일을 통치의 레벨에서도 행하고자 하는데 불과하다. 극히 우수한 자들을 그들보다 못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바로 이것이 천재정치가 의미하는 바이다. 만일 어떤 발명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민주주의적인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면, 지금 우리가 매우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 발명품의 거의 전부가 배척을 당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파리의 거리에는 마차가 달리고 있을 것이다. 자동차, 비행기, 철도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만약 그때 투표

를 했다면 그것들은 명백히 금지되었을 것이다. 오직 천재들만이 그들의 상상력에 의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이러한 발명품의 무한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컴퓨터, 원자력, 혹은 유전자조작 등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내일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하겠는가? 통치하는 것은 앞을 내다보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는 대다수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모른다 하더라도 먼 앞일을 내다보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를 통치의 권좌에 앉혀야 할 필요가 있다.

자기 손이 괴저병으로 썩어가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은 병이 몸 전체에 번져서 죽지 않도록 손을 절단한다. 이때 남은 한 쪽 손이나 발이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두뇌만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예견하고 너무 늦기 전에 병에 걸린 수족의 절단을 결정하는 것이다. 뛰어난 것보다는 평범한 것을 더 좋아하는 우리들의 시대에서는 엘리트주의, 귀족정치, 고귀 등의 낱말이 ‘터부’시 되고 있다. 이렇게 된 연유는 이들 언어가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져 왔기 때문이다.

엘리트주의를 논하기 전에 그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사전을 한번 펼쳐 보자. “엘리트(Elite) : 최상의, 혹은 가장 우수한 자.” 천재정치는 가장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들, 즉 천재, 말하자면 가장 우수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을 권좌에 앉히고자 한다. 그러므로 천재정치체제는 엘리트주의체제라고 할 수 있다.

엘리트주의적인 것은 전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 아들이 중병에 걸렸을 때는 놀랍게도 ‘가장 우수한’ 선생이나 ‘가장 우수한’ 의사에게 치료받게 하려고 성급하게 굴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엘리트라는 말은 오랫동안 재산상의 특권을 부여받고 그 재산의 유복함으로 평균보다 높은 지식수준을 얻고 있던 사회계급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는 그러한 의미의 엘리트에게는 관심이 없다. 천재정치의 기본이 되는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돈이나 지식의 엘리트가 아니고 ‘지성’의 엘리트이다.

귀족정치라는 말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다시 사전을 보자.

“귀족정치(Aristocracy) : 희랍어의 ‘우수하다’는 의미의 ‘aristos’와 권력을 의미하는 ‘kratos’에서 유래되었다.

귀족계급에 의해 행해지는 정치.” 따라서 귀족정치란 우수한(excellent) 권력을 의미한다. 한 번 더 사전을 찾아보자.

“우수한(Excellent) : 어떤 분야에서 뛰어나다. 대단히 양호하다. 완전한.”

천재정치는 우수한, 즉 대단히 좋은, 그리고 완전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권력의 자리에 앉히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재정치는 일종의 귀족정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하는 바는 그것이 돈이나 지식의 귀족정치가 아니라 지성의 귀족정치라는 것이다. 사전은 귀족정치를 귀족계급에 의해 행해지는 통치라고 부언하고 있다. 그러면 ‘귀족’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알아보자.

“고귀한(Noble) : ‘저명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nobilis’에서 유래되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천재정치는 평균보다 높은 지성을 가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권좌에 앉히고자 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귀족정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천재정치는 고귀함이 충만한 사람들을 권력의 자리에 앉히고자 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고귀함이란 돈이나 대대로 내려오는 칭호가 아니고 정신의 고귀함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전에서 군주정치의 의미를 찾아보자.  
“군주정치(Monarchy) : 선거 혹은 세습에 의한 국가원수---  
정치권력은 여기에 존재한다---에 의한 지배체제.” 그러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대통령제는 실제로 군  
주정치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분히 중요한  
결정(사면권이나 핵전쟁 결정권 등)이 단 한 사람에게 의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비해 천재정치는 모든 결정  
이 단 한 사람의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천재들의 집단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뜻한다.

엘리트주의, 귀족정치, 고귀, 군주정치, 이 말들에 그  
참뜻을 다시 한번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 7. 천재정치의 수립방법

“철학자가 왕이 아닌 이상, 왕이 철학자가 아닌 이상 인류의 모든 악이 근절될 날은 없을 것이다.”

소크라테스(Socrates)

천재정치를 수립하는 제1단계는 주민들 가운데 선거권을 가진 자와 피선거권을 가진 자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선거권자는 타고난 지성이 평균보다 10%이상 높은 사람들이어야 하고 피선거권자는 지성수준이 평균보다 50%이상 높아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각 개인의 지성수준을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전문가들 (심리학자, 신경과 의사, 인간행동학자)에게 이런 목적의 달성을 위한 테스트 방법을 창안하거나, 혹은 현존하는 여러 방법 중에

서 개선하여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 테스트는 교육수준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노동자나 기술자나, 농민이나 교수 유자격자를 막론하고 모두 균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어떠한 사람도 특별히 우대함이 없이 주민의 모든 계층에 대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은 박식이나 교양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지성수준인 것이다. 장기간 학업생활로 많은 지식을 가진 자보다도 양식 있는 ‘농부’쪽이 더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지성(Intellect)이란 무엇인가. 지성의 정의를 살펴보자.

G.비오(Viaud)에 의하면 “모든 지성적 활동은 곤란을 해결하고 제안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미 알려진 제 요소로 구성될 발명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 정의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지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으며, 또 그것은 대다수의 심리학자가 부여한 지성의 정의와도 잘 일치한다.

즉 “지성이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그것들이 어느 틀에 잘 맞는지를 결정하는 능력이다.” 그렇다

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 가능한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관련된 테스트의 실시가 중요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이 테스트의 실시에 의해 테스트를 받는 개인의 연령과는 관계없이, 지능지수(IQ)가 아닌 잠재적 지성(PI : Potential Intellect)을 확정함으로써 각 개인의 지성을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8세가 되었다고 해서 바보에게 투표권을 주고 16세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서 천재에게 투표를 시키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원시적 민주주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많은 것들 중 하나다.

전체 주민의 지성이 측정되면 그 평균을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리하여 평균보다 10%이상 높은 지성수준을 가진 자에게는 선거권을 주고, 평균보다도 50%이상 높은 지성수준을 가진 자(천재)에게는 피선거권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들 선거인은 피선거인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치자를 뽑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를 예로 들어 보자. 1977년의 3천만의 선거권자 대신 그 3천만의 27.5%인 825만 명에 달하는, 평균보다 10%이상 지성이 우수한 사람들이 선거인의 모집단이 될 것이다. 그때 이들 선거인은 전체 인구의 0.5%밖에 되지 않는 15만에 달하는

천재들(지성이 평균보다 50%이상 우수한 사람들) 가운데서 정치가를 고르게 되는 것이다.

정말 신나는 이야기가 아닌가? 프랑스에 15만에 달하는 천재들이 있다니 말이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온 것이다.

이것을 지구상의 전체인구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들은 6억 6천만 명의 선거인과 2천만 명이나 되는 피선거권자를 가려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들에게 사태 해결을 맡긴다면 40억의 인구를 구하기 위해 2천만 명의 천재가 일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의 시험은 개인의 진보를 고려하기 위해 매 7년마다 전 인류가 테스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심리적 장애가 소멸하여 본래의 개성이 개화할 때 비로소 자신을 나타내는 천재가 있기 때문이다.

테스트를 거듭할수록 평균 숫자는 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류의 개화의 정도에 대응해서, 혹은 과학상의 발견, 또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기술적 진보에 의해 향상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천재도 내일은 평균보다 약간 우수한 사람이 되어 선거권밖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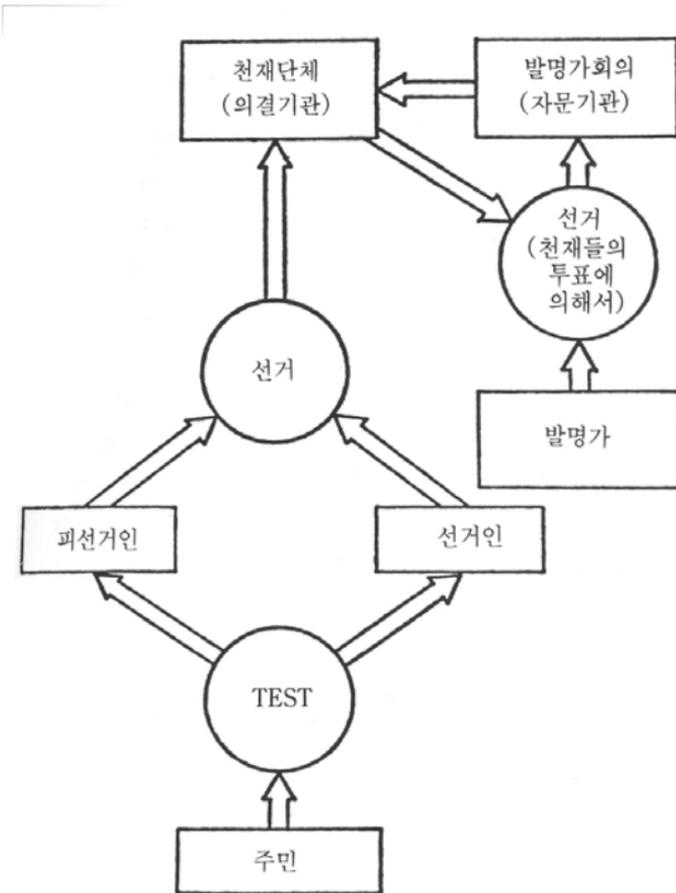
성년에 달한 자는 이 테스트를 받고 난 후 매 7년마다 테스트를 다시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18세에 받은 테스트에서는 평균보다 10% 이상 지성이 높은 그룹에 속하지 못해 선거인이 되지 못한 자도 여러 심리적 장애가 제거됨으로써 7년 후에는 선거인 그룹에 소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74세에 선거인이 될 수 있었던 자가 7년 후 81세가 되어 다시 테스트를 받은 결과, 만약 그의 지성 능력이 노화로 인해 쇠퇴했을 때는 선거권을 잃게 된다. 완전히 노쇠한 노인이 투표하기 위해 투표소까지 남의 등에 업혀 가는 것을 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또한 원시적 민주주의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 중의 하나이다.

이상은 피선거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노화나 사고에 의해 그 지성이 평균보다 50%이상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피선거권은 소실된다.

### 천재로 구성되는 지역단체 기구



## 8. 천재정치의 기본목적

가.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에 의해 천재들 가운데서 선출된 사람들로 구성된 단일의 세계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지구를 인종, 종교, 문화 또는 지성의 정도에 따른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개화와 행복의 세계가 되게 한다.

나.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

다.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폭력을 폐지한다.

라. 노동의 법칙을 그만두고 개화의 법칙으로 대치한다.

마. 지배자 층의 지성의 결여로 일어나는 파멸의 위기로부터 인류를 구한다.

이상이 현재 우리들이 점차 달성하고자 하는 천재정치의 5가지 기본목적이다.

## 9.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의 수립

통치란 앞을 내다보는 일이다. 따라서 장래를 조금도 내다보지 못하는 통치자는 통치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사람들, 즉 천재들에 의해 구성된 단일의 세계정부를 시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역대의 왕들은 그 시대의 천재들을 자신의 치세와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위대한 화가, 건축가, 조각가 그리고 음악가까지도 그 당시의 군주를 칭찬하는데 고용되었다. 그들은 ‘국가’의 고용된 예술가들이었다. 이런 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동유럽제국에 존속하고 있다. 아니 세계 곳곳에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예술가에 그치지 않고, 단순히 문화적인 것 이상의 최고 권위라고 간주되는 사람들, 즉 과학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예컨대 순수한 연구 활동에 종사하려면 과학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국가기관에 소속되든지 아니면 순수한 영리주의적 기업에 소속되어 판에 박힌 듯한 사무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분명히 ‘국가’의 연구기관 속에서는 과학자가 자신이 희망하는 일을 할 자유가 없고 오직 그들의 계획에 따라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도 대개의 경우 오직 그들의 활동으로 직접 이익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 군사적 관심에 의한 동기에서이다.

이렇게 하여 다음과 같은 역설에 부딪친다. 즉 천재들은 보통사람들의 지령에 따라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천재정치가 목표로 하는 것은, 천재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일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천재들이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데 있다. 한 시대를 장식하는 사람들, 그들은 천재들이다. 사람들은 퀴리부부나 아인슈타인을 기억하는 일은 있어도, 그들에게 결정한 일을 시키고 싫은 소리를 했던 어리석은 통치자들을 생각하는 일은 없다. 이러한 천재들과 당시의 통치자들 중에서 누가 인류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했는가 하는 것은 명백히 알 수 있다.

천재들이 인류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일한 반면, 정치가들은 그들 자신의 이권을 위해 공약을 한다. 누가 더 통치할 자격이 있는가?

세계가 평균보다 지성이 높은 사람들에 의해 통치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까?

나는 내가 평균보다 지성이 높은지 낮은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나보다 지성이 훨씬 높은 자들에 의해 통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보다 혜택 받은 환경에서 교육되고 고등교육을 받고, 막대한 금전과 연고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우리들의 지도자로 승인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컴퓨터와 정보과학의 시대에 있어서는 박식이나 지식의 축적이 이미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없으며, 이해를 위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분석, 종합해 주므로 즉석에서 필요한 지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컴퓨터가 인간을 기억의 한계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시대의 사람은 과학, 특히 정보과학의 발달에 의해 순수한 개인의 본래 성향을 재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은 어디서나 설치되어 있는 기계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주요원칙만 알고 있으

면 되는 것이다.

지식을 순수한 상태에 놓아두자!

각 정부가 천재들에게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천재들은 그들 자신이 직접 그런 장소를 세계적인 규모로 확보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우선 중립국에 임시의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들의 연구결과가 군인이나 정치가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과학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정부이다. 그러한 과학자들은 최종적으로 천재정치의 수립을 원하고 있으며, 그후 그것이 만장일치로 승인된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에 의해 발명된 작품이나 안전한 기계의 상품화에 의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연구단지의 창설을 계획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는 심의 결과를 최초의 5년간은 공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합법적인 관리인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 그것은 만일 실제로 통치가 행해질 때 예방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을 파악하고, 또 연구결과가 그 연구에 하등 기여한 바가 없는 ‘평균정치적’ 정치가들에 의해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역으로 이들 ‘평균정치적’ 정치가들의 나라의 여론에 그들이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 그 정치가들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그 나라에서는 다음 선거부터 천재정치주의자들을 선출하고자 하는 바람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사실상의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의 활동 중 하나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세계적 천재정치의 실현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의 창설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천재정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정치라는 이 선택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원시적 민주주의를 폐지할 필요성을 민주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세계적 천재정치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운동이 한 나라의 전 국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택될 때 그 나라가 자연스럽게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에 의해 통치되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리고 각국이 천재정치에의 길을 선택함에 따라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의 구성원 집단은 수가 늘어갈 것이고, 적어도 지구 주민의 반 수가 세계적 「천재정치」의 길을 선택하기까지 이 과정은 계속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지구상의 인류는 마침내 통일될 것이다. 이 통일의 도래에 헌신한 모든 사람들은 인류에 의해 그 업적이 영원히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을 가리킨다. 이 책을

읽고 지성과 우애의 개척자가 되고자 하는 당신들이 바로 그들이다. 당신은 이제 인류 역사의 방관자가 되는데 만족하지 않고 지구라는 대 무대 위의 연기자가 되려고 한다. 또한 바라거나 바라지 않거나 간에 방관자도 실은 한 사람의 연기자이다. 가령 그가 방관자의 입장에 만족하려고 해도 동시에 그는 연기자인 것이다. 다만 그는 그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연기자일 뿐이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 10. 천재정치와 합의제

천재를 말하면 항상 세계의 지배자가 되려고 한다든지, 혹은 위험한 병적 집착에 사로잡혀 지성을 사용하여 지구를 파멸시키려는 미치광이 천재를 화제로 삼는다. 그러나 세계가 한 사람이 아닌 수백 명의 천재들로 구성된 단체에 의해 통치되는 천재정치 체제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

합의제는 각종 결정이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한다. 불행히도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그러한 일은 사면을 내리는 권한이나 핵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현재의 대통령체제 아래서 일어나고 있다. 천재적인 점이라고는 전혀 없는 한 인간의 두뇌가 현재 소위 민주주의 체제하에 있는 모든 국가에서 한 인간의 생명, 또는 더욱 중요한 몇 백만의 무고한 국민의 생사를 결정하며,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의 파멸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또한 원시적 민주주의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원시적 민주주의의 귀결인 대통령제는 기묘하게도

그것이 대체되었던 공화제 이전의 군주제로 점점 닳아 가고 있다. 공화국 대통령이 “내 뜻은 이와 같다.”고 하며 죄수를 처형시키거나 핵전쟁을 발발시키는 일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천재정치 아래서는 합의제 덕분에 그런 일은 전혀 없다. 확실히 세계정부라는 천재단체의 장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장은 독단적으로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회의를 주재하고 채택된 결과를 알리는 데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지위는 특별히 명예스러운 자리이므로 공식행사(개회식 등)에서는 정부를 대표하는 일이 허락되어야 할 것이다.

또 세계정부의 천재단체에서의 투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견이나 색채를 가진 구성원이 말로써가 아니고 글로 써서 그 의견을 발표한 후에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철학적인 또는 본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연쇄반응’에 의해 선거인이 투표하는 일이 없도록 글로 씌으로써, 각 천재가 어떤 의견을 진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형식이 아닌 내용에 의해서 판단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검토되고 있는 제반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완전히 익명으로 내는 일도 좌파나 우파의 대표자가 내린 지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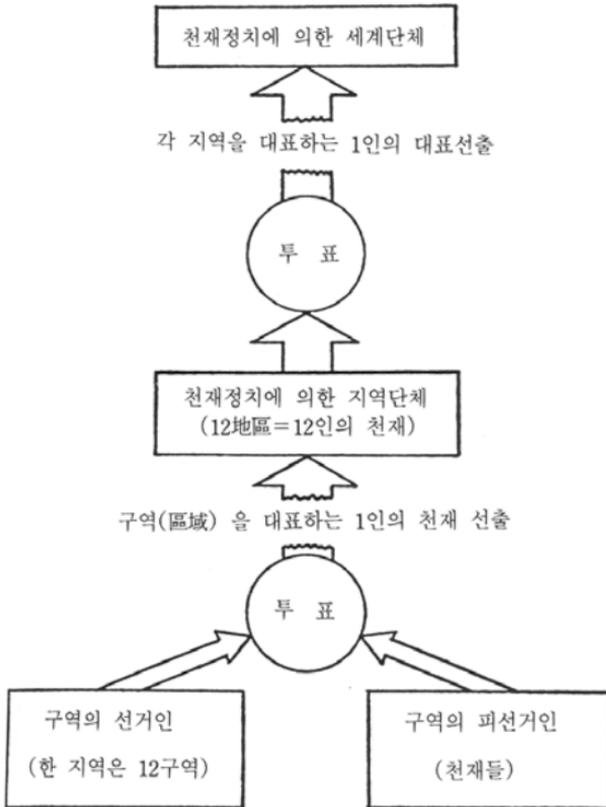
의해 태도나 결정이 바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똑같이 바람직스럽다. 이 일은 개개의 천재가 자신의 투표가 갖는 의미나 내려질 결정을 참으로 ‘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투표 그 자체도 전자공학기술로 완전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고 거수에 의한 투표로 생기는 ‘전염’ 현상도 피할 수 있다. 전자 공학적인 키보드에 의해 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아마 천재단체의 각 구성원은 옆사람의 반응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투표박스에 앉아서 투표하게 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수단 전부가 당사자들, 즉 천재들 자신에 의해서 연구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천재는 과학자들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해 두고 싶다. 사람들이 천재라는 말을 꺼낼 때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 화가, 시인, 음악가 또는 농민 중에도 천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전체를 파괴하려는 광기의 천재’를 생각하기가 쉽다.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안에는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철학자, 화가, 시인, 음악가 그리고 농부도 똑같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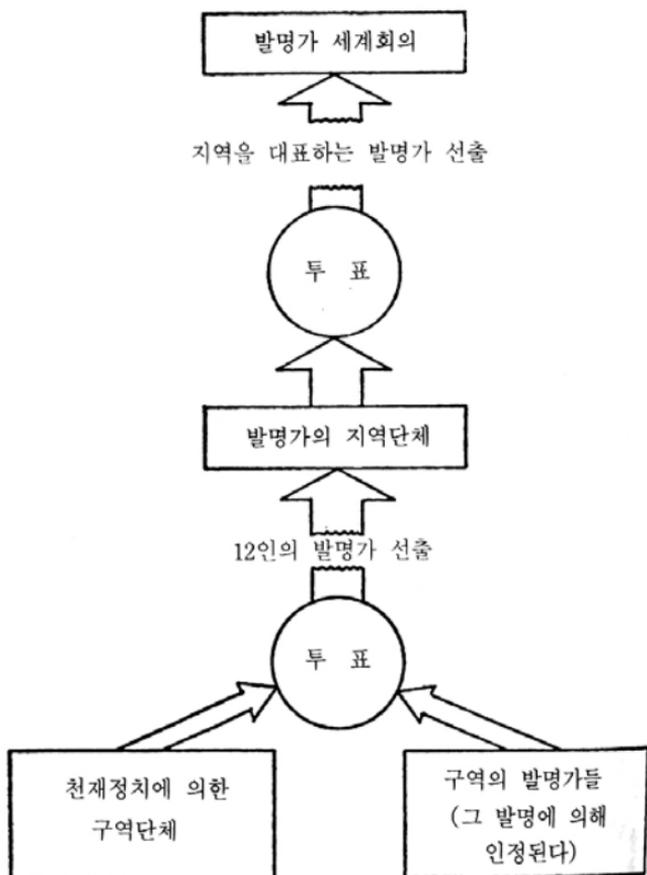
과학자와 문학자,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과학과 양심을 결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천재정치의 목적인 것이다.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양심이 정체해 버린

데 비해 과학만이 급격히 발달한데 그 원인이 있다. 과학이 비교적 대중에게 보급되어 있는데 비해 양심 쪽은 대중에게 퍼지지 않고 특정 사상가나 철학자의 소유물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대중이 어제의 양심을 가지고 내일의 과학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천재정치는 적어도 그 과학 수준과 같은 양심의 수준까지 개개의 사람들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든 라트레이 테일러 (Gordon Rattray Taylor)가 과학이 오늘날 실현했고 장차 실현하게 될 업적들을 전부 검토한 후, 그의 멋진 저서 “생물학의 혁명” 중에서 도달한 결론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것이다. 즉 “현자가 쓴 책을 잘 읽을 필요가 있다.”

##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단체로의 길”



## “발명가 회의로의 길”



## 11.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의 구성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의 구성은 지금까지 보아 온 바와 같이 우수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모든 테스트에 의해서 확인된 그들 개인의 지성적 유형이 실천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지성일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테스트에서는 잘 찾아낼 수 없는 천재의 한 타입이 있다. 그것은 발명가이다. 이 발명가라는 타입은 인류의 진보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발명가라는 유형의 천재들이 세계정부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전문분야(과학, 예술, 철학 등)에서 인정받은 발명가들이 그들이 속하는 지역의 천재들에 의해 추천된다. 그리고 천재들의 세계단체가 추천된 모든 발명가들 중에서 그들의 활동, 발견, 발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발명가회의를 구성한다. 이 발명가회의는 결정권한을 갖지는 않지만 발생하는 제반 문제의 해결책을 고찰하거나 인류의 처지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에는 이들 해결책이나 발명계획이 천재들의 단체에 제출되어 거기서 천재들에 의해 가장 유익하다고 보여 지는 계획의 실시여부가 민주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 12. 지역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천재정치를 향하여

인류의 장래를 검토하는데 적합한 유일한 방법은 문제를 세계적 규모로 고찰하는 일이다.

인류는 그 영역을 부족, 촌락, 지방 그리고 국가로 점차 넓혀 왔다. 지구의 오염이나 핵무기의 증대라는 문제에 직면해서 지성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세계정부’를 수립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일찍이 자각했다. 이 구상은 현직 정치가들로부터는 비현실적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이 실현될 경우 자기들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과분한 보수를 받고 있는 군인들에게 있어서도 똑같다. 그들도 직업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국경이 없어지게 될 경우 적어도 현재 이해되고 있는 의미에서의 군대는 필요 없게 될 것에 대해 명백히 알고 있다. 이러한 군대들은 무기 없이 고용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며 무장에 의해, 기습공격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을 내다보는 천재들의 이러한

현실적 구상을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나 보통 사람들이다. 비현실적인 구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다만 구상을 실현할 능력이 없는 자들뿐이다. 따라서 이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는 지구상의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천재들에 의해 구성될 것이다. 이들 지역은 민주적으로 그 경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오늘날의 모든 국가는 대개 자신의 부를 늘리고 싶어 하는 유산계급에 의해서 저질러진 살육전의 결과로 태어났다. 이것은 식민지주의 시대의 것이다.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의 양쪽에 사는 바스크 족들은 단일 ‘국가’의 수립을 원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문제이고 또 그들만의 문제이다. 그들이 함께 사느냐 또는 타 국가에 병합하느냐를 선택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다. 이와 같은 바스크 족은 지구상의 모든 곳에 있다. 독립된 조국을 갖기를 바라는 어떤 지역의 주민도 인류 전체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다. 각 지역의 주민은 각각 자신들의 정치조직을 스스로 결정한다. 프랑스의 실레를 든다면 코르시카 인, 브레타뉴 인, 오크스 인, 그리고 알사스 인들이 그 경우에 속한다. 따라서 먼저 처음에 각 시, 읍, 면의 주민에게 자신들이 어떤 지역에 속하기를 바라는 가를 천재정치의 방법에 의해 투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국가주의적인 생각은 없어지고 각 지역의 경계를 결정하는 일이 가능하

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투표는 그후 어떤 시, 읍, 면의 주민이 투표를 희망할 때에도 실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의 이동에 따라 특정의 시, 읍, 면이 인접하는 지역으로 귀속의 변경을 바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각 지역이 그곳에 위치한 시, 읍, 면 주민의 투표에 의해 지리적으로 결정되면 각 지역은 똑같은 수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12개의 지구로 나뉘어 진다. 그래서 각 지구는 그곳에 속하는 천재들 중 한 사람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이렇게 해서 선출된 12인의 천재들이 하나의 ‘천재정치에 의한 지역단체’를 구성한다.

다음으로 이 지역단체는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에 그 지역을 대표할 한 사람의 의장을 그 내부로부터 선출한다. 이 천재정치에 의한 지역단체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 지역에 사는 발명가들에게 그 지역과 직접 관계되는 시행계획을 그 지역단체의 투표에 부치기 위해 제출하는 임무를 주고, 그들 중에서 12인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발명가회의를 선출한다. 따라서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는 민주적으로 결정된 지구상의 전 지역을 각각 대표하는 천재들로 구성된다. 각 지역 대표자에게는 ‘세계정부’에서 행해지는 투표를 위해 대표하는 지역주민의 수에 비례

하는 하나의 계수가 할당된다. 이렇게 하여 백만의 주민이 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천재는 계수 1을 갖고, 5천만의 주민이 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은 계수 50을 갖게 된다. 이런 까닭으로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에서의 투표는 UN에서 행하는 투표와는 다르며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적이다. 인구수가 겨우 10만인 카타르 같은 나라의 대표자의 투표권이 인구수가 2억 이상인 미국 대표자의 투표권과 똑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UN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최소의 확률이지만, 만일 700개의 지역이 민주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는 모든 인종, 문화, 종교에 속하는 700인의 천재에 의해 구성될 것이다. 세계를 지배하거나 지구를 파괴하려고 하는 광적인 천재라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제 2 장  
지구를 개화와 행복의  
세계로 만들기 위한  
제안

## 1. 머리말

우리들은 천재정치의 기본원칙이 무엇인가를 보아 왔다. 평균보다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선거권을 갖고, 천재들만이 피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 기본원칙이다. 천재정치의 수립방법도 ‘세계정부’의 기구도 마찬가지로 당사자, 즉 천재들 자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본서는 화약이 자동점화하여 불꽃을 일으키는 뇌관, 말하자면 평균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자들이 책임져야 할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만약 천재들에게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 설명한다거나 세계를 어떤 방법으로 통치할 것인가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진정 월권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들의, 그들만이 짚어진 문제이다.

지금까지 말해 온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의 조직화에 대한 예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한 예일 뿐이고,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다. 또 실제로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수백 명의 천재단체

지구를 개화와 행복의 세계로 만들기 위한 제안  
가 우리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해결책을 발견할 수 없  
다면 그야말로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본서는 정말로 지성이 최종적으로 우리 행성을 통치  
하기 위해 결집하고 싶다고 저들 천재들이 생각하도록 돕  
는데 목적을 둘 뿐이다.

이제 계속해서 말하겠지만, 다가오는 제3의 천년기  
즉 ‘황금시대’의 입구에 서 있는 인류가 안고 있는 큰 문제  
는 현재 통치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들이 그 입구  
로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전부를 파괴해 버리거나 앓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앞으로 제안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되풀이 말하지만, 천재들의 단체가  
반드시 훨씬 더 효과적인 별도의 해결책을 생각해 낼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들이 결집한다면 지구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되기 전에 통합된 그들의 정신이  
빛을 발휘할 것이다.

## 2. 자신이 바라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인간은 강제노동을 하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누구나 60세나 65세가 되어야 겨우 방면되는 종신강제노동을 선고받고 있는 것과 같다. 노동조합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전체 노동자의 요구는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시간의 단축이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자유를 바라는 인간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루의 강제노동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이 한 세기를 돌아보면 우리들은 먹고 자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빼고는 쉴 시간도 없이 일해 왔음을 알고 있다. 하루 14시간, 1주일에 6일, 1년에 12달, 그리고 8, 9세부터 죽을 때까지 노동자는 혹사당해 왔다. 그것이 하루에 10시간, 다시 하루에 8시간으로 1주일에 5일, 1주일의 연차휴가까지 붙게 되고, 다시 또 연차휴가가 2주, 3주, 그래서 드디어 4주가 된 것이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먹고 지낼 수 있는 정년은 65세, 60세로 인정되어 왔지만, 지금 어떤 직업에서는 55세로 허용되는 일도 있다.

지구를 개화와 행복의 세계로 만들기 위한 제안

현재는 점차 메뉴로부터 요리를 골라 먹듯이 노동의 선택이 자유로워졌다. 즉 일정한 기간 내에서 자기가 원할 때 강제노동 시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한 주 40시간의 노동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하고 있다. 예를 들면 8시간씩 5일, 10시간씩 4일이라든지, 또는 새벽근무나 야근 따위이다.

그러면 가까운 장래에는 어떤 발전이 있을 것인가? 몇 개의 기업에서는 이미 하루 8시간 이하, 또는 7시간,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6시간 또는 주 5일이 아닌 주 4일로 종업원을 쓰고 있다.

예를 들면, 파리지방 사람들은 통근시간으로 도심까지 2시간쯤 걸리지만, 이 지방의 기업에서는 통근시간을 제외해서 하루 6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많은 기업의 유급휴가는 일년에 5주이지만, 몇몇 기업에서는 이미 6주인 곳도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기업의 종업원들은 점차 높은 급료보다는 오히려 이른바 ‘생활의 질’이라 부르는 것을 추구해서 보다 유연하고 안정된 근무시간을 바라는 경향이 있다.

많은 관리직이나 독립노동자들은 몇몇 사람들이 공

동으로 한 가지 사업을 하기도 하고, 자유업(변호사, 의사, 간호사 등)도 ‘공동사무소’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렇게 하면 기사나 우수한 기술자들은 똑같은 급료를 분배 받게 되므로 그들은 매일 4시간, 또는 2주일에 1주일, 혹은 2개월에 1개월, 또는 1년 중 5개월 반만을 일하고 교대로 1년에 6개월 반의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절반의 급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유급휴가 기간동안 그들은 만약 원한다면 무언가 ‘강제적’이 아닌 일에 종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구를 한다든지, 책을 쓰거나, 교양을 쌓거나, 공부를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요컨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를 개화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을 것이다. 젊은 관리직들은 상당수가 점차로 월 6천 내지 8천 프랑을 벌기보다는 월 3천이나 4천 프랑만 벌고 그다지 윤택하지는 않더라도 그 대신 1년에 6개월 이상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지내는 편을 바라는 경향이 되고 있다. 특히 현재는 그들이 ‘가정’을 가지려고 결심했을 때 똑같은 조건으로 일하는 부인과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두 사람의 반씩의 월급을 합하면 완전한 한 사람의 월급이 되고, 게다가 6개월 이상의 유급휴가가 따르는 셈이 된다.

정년퇴직이나 은퇴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준비로’ 되도록 빨리 일을 끝마치려고 한다. 그들은 수입이 적더라도 생활하는 시간을 더 활용하고자 한다. 하기는 “그렇게 말하지만, 일을 그만두고 대체 무얼 하는 게 좋다는 거지?”라고 말하면서 은퇴를 준비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 밖에 모르는 괴짜들은 별도로지만..... 이것은 저들이 얼마나 교육에 의해 조건 지어졌으며 일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개성을 빼앗겨 버렸거나, 또 무언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 자신을 개화시키는 일이 이미 불가능하게 되어 ‘일’ 이외의 것을 취미로 갖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제부터의 교육은 점차 인간을 노동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개화로 향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장차 어떻게 될까? 노동시간은 점점 더 단축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하루 6시간, 다음에는 5시간, 4시간, 3시간.....으로 점점 짧아질 것이다. 반대로 연차휴가는 길어질 것이다. 여름에 1개월 반, 겨울에 2주, 부활절에 2주 (학생들처럼 합계 2개월 반)로, 그 다음에는 여름에는 2개월, 겨울에 1개월, 부활절에 1개월, 합해서 1년에 4개월이라는 등이다. 일도 차차 두 사람이 하게 되면 노동시간도 짧아져 두 사람의 ‘공동종업원’이

각각 1년에 8개월의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년은 50세, 45세, 40세.....로 점차 빨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하나의 문제가 일어난다. 당신이 받은 교육이 당신까지도 오염시켜 강제노동의 종신형에 동의하도록 당신을 조형시켜 놓은 점이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타입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는, 하나의 천직--타고난 재능--을 갖고 여가 또는 퇴직 후에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일함으로써 자기를 개화시키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여가를 자신의 교양을 높이거나 문화활동 혹은 스포츠 등 각자에 맞는 오락을 위해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각자의 자유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항시 있는 바캉스에서는 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작가, 화가, 시인, 연예인, 예술가가 점점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생산자, 때로는 소비자로서 각 사람이 그 기호와 능력에 맞게 자유로이 입장을 바꿀 것이다.

일정 기간---가능한 한 빨리---이 지나면 노동시간은 점점 단축되고 정년은 점점 빨라져서 마침내는 의무적인 노동, 강제적인 노동이 완전히 폐지될 것이다. 일하는 것이 취미이고 즐거운 사람들만이 '자발적으로' 노동을 계

속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인권선언”의 제1조에 “모든 인간은 어떤 대가도 없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쓸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필요불가결한 일들은 전부 누가 맡을 것인가 고 당신은 물을 것이다. 그것은 기계가 해결 것이다. 벌써 당신이 충분히 실감하지 못할 정도로 로봇이 이미 인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시작했다. 만약 우리가 ‘이미’ 하루 8시간 이상은 일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기계의 덕분이다. 만일 기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50년 전과 똑같이 하루 10시간을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피아트 회사는 차 한대를 만드는데 20년 전에는 100명의 노동자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단지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나는 지금 ‘단지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공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100% 자동화된 새로운 조립라인은 단 한 대의 컴퓨터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 그리고 중앙통제실에는 단 한 사람의 기술자가 이 컴퓨터를 조작하고 감시할 뿐이다. 그리고 이 기술자 한 사람마저도 가까운 장래에 더욱 정교한 컴퓨터 한 대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농업에 있어서도 똑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특별

한 포도의 재배자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자동적으로 포도나무를 따뜻하게 해주고, 물을 주거나, 비료를 주는 한대의 컴퓨터와 연결된 재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명백히 이 시스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공장의 소유자가 모든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들에게 더 이상 급료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이제까지의 노동력이었던 노동자를 굶주리게 하고 자기들은 기계덕분에 파렴치하게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정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백명의 노동자를 대신하는 한대의 기계를 설치한 경영자는 이미 할 일이 없어진 100명의 노동자들에게 계속해서 급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기계는 노동자들이 여가와 개화의 문명에 들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기계가 인간을 예속화하고 기술은 사회에 있어서 인간성을 상실시킨다고 말한다. 그것은 틀린 말이다. 확실히 공장은 인간을 예속시킨다. 공장은 인간을 예속시키지만 로봇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또한 인간이 강제노동기계, 또는 강제노동의 장소에 다니는 통근기계와 혼동되어지는 한에 있어서는 기술은 사회의 인간성을 상실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결코 기계와 인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개화를 위한 장소

지구를 개화와 행복의 세계로 만들기 위한 제안

에 존재하도록 창조되었고, 반면 기계는 로봇이나 컴퓨터에 의해 관리되어 노동을 위한 장소에 존재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에 의해 행해지는 노동은 모두 기계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인간이 행하는 일은 모두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고 게다가 인간보다 훨씬 더 잘 해낸다. 인간은 실수가 있지만 컴퓨터는 결코 실수가 없다.

만약 지구상의 군사예산에 사용되는 돈이 공장, 생산 현장 및 사무실의 개량에 투자된다면 7년 만에 노동은 완전히 자동화되고 인간은 노동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인간은 자신을 개화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기계는 일하도록 만들어졌다. 로봇이 인간의 작업을 해주는 것이지, 인간이 로봇의 작업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유감스럽게도 후자인 것이다. 그러면 누가 기계를 감시할 것이냐고 당신은 물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실로 간단하다. 생산수단의 완전한 자동화에 필요한 최초의 약 10년간은 군대가 그 감시와 유지를 위한 모든 일에 배속될 수 있다. 또 현재 매년 몇 주인가 스위스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병역을 대신해서 공적인 임무를 1년 내지 2년간 하도록 하는 제도를 창안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소집된 병사와

전문가 집단만이 각 생산 단위에서 일하게 되고 그 밖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된다. 자기 스스로 수리가 가능한 컴퓨터나 생물로봇---여기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다---에 의해 감시, 유지, 수리되는 완전 자동화된 자동운용 및 자동관리의 생산 단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아주 짧아서 일시적 기간---약 7년---에 불과하다. 이 생물로봇은 농업, 공업, 가사 또는 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생물로봇은 인류가 DNA(디옥시리보핵산) 연구에 의해 이제 막 실험실에서 합성하려고 하는 물질, 즉 생명물질로부터 제조될 로봇을 말한다. 전자공학, 생물학, 인공지능(Cybernetics)의 발달로 인해 만약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재정적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영역에서 최소한 인간과 동등한 능력을 갖는 로봇을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노동시간의 변천과 수혜자의 변화〉

생산단위	부족	촌락	공장	공장	반 자동화 공장	완전 자동화 공장
생존수단	수렵과 채집	가축 사육과 농경	손노동	보조적인 손노동	감시 유지	없음
하루 노동시간	14시간	14시간	14시간	10시간	8시간	0
이익자 (수혜자)	개인	개인	공장주	공장주	공장주	공동체
교환수단	물물 교환	화폐	화폐	화폐	화폐	배급
활동목적	생존	생존	생존	보다 낳은 생활	보다 낳은 생활	자기 개화

### 3. 소득격차의 시정에서 화폐의 폐지로

화폐와 관련해서 귀족정치, 즉 농민을 착취했던 영주들의 시대에는 농민을 1이라고 하면 소영주가 약 100, 대영주가 약 1만, 그리고 그 국가를 다스리는 국왕이 10만 이상이라는 소득의 격차가 존재했다. 오늘날 이 격차는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 프랑스의 예만 들어도 프랑스혁명 때는 폭력적으로, 그 이후는 점진적으로 그 격차가 감소되어 법정최저임금제의 도입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전의 국왕에 해당되는 국가 정상에 오른 인물, 즉 프랑스 대통령도 현물로 주어지는 관사 및 공용차 등의 특전을 포함해도 1977년도 그의 소득은 법정최저임금의 약 30배 이상은 되지 않는다. 2백년이라는 세월을 고려할 때 그 격차는 아직도 크지만 계속해서 감소되어 갈 것이다.

또 대영주에 해당되는 대의원, 장군 혹은 실업가의 예를 들어도 그들도 평균 최저임금의 약 15배 이상은 되지 않으며 앞서 말한 1만 배에는 비교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소영주에 해당하는 시장이나 작은 기업의 경영자들의 경우도 최저임금의 약 7배 이상은 되지 않는다. 세계의 모든 정부가 소득 격차를 줄이려는 계획을

입안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그 격차가 6배 이내로, 스웨덴에서는 이미 4배 이내로 낮추어졌고, 다시 가까운 장래의 소득 격차는 최대가 3배 이내로, 마침내는 최저임금의 3배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향은 노동시간의 단축 경향과 연결되어 전 지구상에서 소득격차가 0으로 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소득격차가 없어질 때 화폐는 이미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며, 그때는 아무 문제없이 화폐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아마 그때 또는 그보다 조금 전에 다음의 기본원칙이 보편적으로 인정될 것이다. 즉 “모든 인간은 아무 대가없이 그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쾌적한 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 4. 배급경제

‘중신강제노동’의 폐지는 배급경제의 확립에 달려 있다. 이 경제시스템이 화폐제도의 폐지를 가능케 한다. 이 경제시스템은 모든 생산단위가 인간이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많지도 적지도 않게 생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는 필요한 물건이 있다. 의, 식, 주거 그것이다.

사회는 이들 세 가지 물건을 모든 인간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공급해야 한다.

국가는 폐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실현되어야 할 것은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아니고 세계 공유화인 것이다. 만약 직업, 인종, 종교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로봇이나 컴퓨터에 의해 생산된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공급받게 된다면, 가치 있는 것은 그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금전적 가치밖에 지니고 있지 못한 것은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이 팔릴까 안 팔릴까

지구를 개화와 행복의 세계로 만들기 위한 제안

를 걱정할 필요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따라서 그 작품이나 예술을 아는 체 하거나 수집광이 아닌 정말로 평가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하나의 발명이 흥미 있다고 보여 질 때 비록 그것이 실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작품은 대량으로 생산되어 한 개 갖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배급된다.

또 희소품에 대해서는 어떨까? 21세기의 문명은 인간으로서의 천재 이외에는 희소품 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철갑상어알젓, 삼페인, 다이아몬드 등 그 무엇이든 실험실에서 모두 합성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만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포도주, 철갑상어알젓, 다이아몬드, 육류, 향수 등은 모두 화학적인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이 화학적 방식에 의해 과학적으로 재생산되어질 것이다. 생명, 그리고 인간조차도 그 개성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유전자코드의 DNA분자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 5. 노동과 매춘

“한 세기 이래 강제노동에 의해 인간은 그 뼈를 깎아야 했고 몸을 다쳐야 했으며 신경을 학대해 왔다.

한 세기 이래 인간은 그 창자를 움켜쥐고 마음에 환상을 심어 왔던 것이다.

아아, 안일이여,

우리들의 기나긴 비참에 연민을! 아아, 예술과 고매한 덕의 어머니인 안일이여,

인간 고뇌의 위안이여!”

폴 라파르그(Paul Lafargue, 프랑스 사회주의자)

하루 8시간을 기계의 그늘에서 사는 노동자나, 같은 시간을 서류 속에 파묻혀 사는 사무원은 매춘부를 경멸의 눈초리로 보지만, 그들과 매춘부 사이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매춘부는 돈을 벌기 위해 그 육체를 잠시 빌려주지만,

노동자는 돈을 벌기 위해 그 육체를 경영자에게 하루 8시간 동안 빌려주는 것이고 사무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기사는 마찬가지로 돈 때문에 그 육체뿐만 아니라 두뇌까지도 빌려주는 것이다. 사는데 필요한 것과 바꾸기 위해 노동하고 있는 자는 모두 매춘부인 것이다.

나는 철학교수 자격과 문학사 자격을 갖고 있는 젊은 여성을 한 사람 아는데, 그녀는 파리 상제리제 거리에서 매춘을 하고 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말한다. “나는 많은 면허증과 일거리를 갖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먹고 자는 것이 고작이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1분도 없었어요. 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저술을 하는 대신 식료품 가게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니체 철학을 가르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반대로, 매춘은 하루 한 두 시간 몸을 빌려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따라서 하루의 남은 모든 시간은 독서나 철학 공부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지요. 돈을 벌기 위해 마음과 몸을 파는 일을 주저해 본 적은 한번도 없어요.”

여기에 정당화될 수 있는 이론이란 없다. 그것은 결국 종신노동을 하는 노동자들 전부가 이 젊은 여성과 같이 뛰어난 육체와 총명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까닭이다. 이 사실이야말로 저들이 천재정치의 실현을 요구하고 단

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천재정치 체제에 있어서는 천재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춘당하고 있는 것을 기계나 컴퓨터에 맡기고 화폐를 폐지하며 나아가서는 매춘 그 자체를 폐지하기 때문이다.

## 6. 미래의 노동자 : 전자로봇 또는 생물로봇

“만약 도구가 완전히 제 자신만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들은 더 이상 노예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s)

전자공학, 인공지능(사이버네틱스), 정보과학 및 생물학의 긴밀한 협력아래, 가까운 장래에 인간이 행하고 있는 노동의 전부를 인간보다 월등히 우수한 정도와 속도로 일할 수 있는 로봇이 제조될 것이다.

기억작용 및 기억된 정보의 이용 면에서는 신형 컴퓨터가 인간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미 의학생을 상대로 사용되고 있는 교육 기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 기계는 학생에게 교수와 똑같이 정확하게 증상을 열거하고 학생의 답변을 듣거나 거기에 코멘트를 하기 위해 질문을 던진다. 이 컴퓨터를 체온, 맥박, 혈압의 각 측정 장치와 채혈장치, 또 혈액이나 오줌 분석장치 등에 연결, 접속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용이한

일이다. 이렇게 환자에게 자동적으로 연결되면 전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환자에 대한 의학적 검진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의사소통의 문제도 같은 식으로 해결한다. 그것은 인간의 음성을 합성해서 타자기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음성과 똑같이 정확히 말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하는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치는 또 반대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기계가 “이 곳을 누르면 아릅니까?”라고 질문하며 진단하는 일도 간단히 이루어질 것이다. 또 환자의 신경이 극도로 긴장되어 있음을 기계가 감지하고 “긴장을 푸십시오.”라고 말하게 할 수도 있다. 이 장치는 그다지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지만 무뚝뚝한 의사보다는 훨씬 온화한 음성과 말씨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알다시피 로봇의 이용은 조립라인에서의 자동차 제조보다 훨씬 앞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은 과학 소설이 아니고 현재의 사실이다. 언제나 픽션을 추월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이 하는 일이 전부 그렇다. 나는 감히 ‘전부’라고 말하는데 기계는 더욱 훌륭하고 더욱 빠르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특권적 영역이라고 믿어 왔던

예술이나 창조활동 분야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현재는 음악을 작곡하고 그것을 연주하는 컴퓨터도 존재한다. 다양한 형태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시사이저(Synthesizer)음색은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다. 신시사이저란 모든 악기의 음색뿐만 아니라 인간의 음성까지도 재생할 수 있는 컴퓨터이다. 이 기계는 바하나 베토벤의 곡을 세계의 어느 심포니 오케스트라보다 더 정확히 프로그램 할 수 있다. 바이올린을 100개나 가진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자. 100개의 바이올린이 완전히 동시에 소리를 낸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제일 빠른 연주자와 제일 늦은 연주자와의 사이에는 항상 10분의 몇 초 정도 차이가 생기고 연주자 전체로서는 100분의 몇 초라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 만일 컴퓨터라면 100개의 바이올린의 음을 재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구나 전체가 동시에 완전히 (천분의 몇 초 차이만으로) 재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케스트라의 여하한 명지휘자라도 인간인 이상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다소의 지연이나 주저야말로 오케스트라 명지휘자의 개성을 바르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주저 자체와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컴퓨터에 프로그램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신시

사이저의 또 하나의 이점은 악기가 놓여 있는 홀의 자연적 음향효과를 이용해 온 이제까지의 악기보다도 더욱 순수한 음색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특히 녹음 또는 증폭 시에 마이크나 앰프로 음을 통과시켜야 할 때 더욱 명백해 진다. 신시사이저는 거의 완벽하고 순수한 음색을 직접 앰프에 보낼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이 놓여 있는 실내의 음향 효과적 결함으로 인해 순수성이 손상되는 일이 없다. 국립과학연구소의 연구원이며 작곡가인 장 클로드 리세(Jean- Claude Risset)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컴퓨터의 정밀도와 기교에는 한계가 없다. 그것은 인간 연주자에게는 불가능한 정밀성을 가지고 어려운 악보, 복잡한 리듬을 연주할 수 있다. 작곡가 중에는 연주자를 배제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소리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형태, 색깔, 냄새, 맛에 대해서도 똑같이 가능하다.

허리의 선을 그리는 화가는 수없이 많은 가능한 선 중에서 하나의 이상적인 선을 택해 그린다. 컴퓨터도 이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모델리아니의 긴 목이나 뷔페의 무수한 수직선 같이 화가를 특징짓는 개성에 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컴퓨터도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어쨌든 바하 풍으로 곡을 연주하는 것이 가능하

다면 모달리아니 풍으로 대상을 그리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컴퓨터는 현존하는 모든 스타일을 음미하고 대중의 기호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발명하는 것조차 가능하다.

“창조성의 발전에 있어서 컴퓨터가 하는 역할은 이제 시작한 정도이지만 그 장래는 대단히 유망하다.” 이것은 그르노블 국립과학기술연구소의 아놀드 가우프먼(Arnold Kaufman) 교수의 말이지만 가까운 장래에 현실은 이 예상을 다시 상회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컴퓨터가 예술과 같이 어렵고 정교한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면, 인간의 생존에 불가결한 모든 일, 즉 식량이나 에너지, 완성품의 공급은 기계에 의해 아무 문제없이 해결될 것이 극히 명백하다.

생산수단의 완전자동화 과정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단계는 이른바 컴퓨터와 로봇의 제조가 될 것이다. 이들의 제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컴퓨터를 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체 계획은 중앙컴퓨터에 입력된다. 그것은 완전히 성장한 인간의 물리적 특징을 포함한 유전자코드가 최초의 세포 속에 존재하는 것과 약

간 닮았다. 그리고 이 중앙컴퓨터는 마치 최초의 세포가 손이나 눈을 갖추는데 이르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감각 혹은 작업장치를 부착할 것이다.

다음에는 중앙컴퓨터의 프로그램 속에 자기재생, 즉 자기와 똑같은 능력을 갖는 다른 컴퓨터의 생산을 가능케 하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기 차례가 되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인간을 생식기관에 의해 만들어 내는 것과 같다. ‘원형의 보존’은 자기재생이 가능한 컴퓨터의 형태를 보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식량, 에너지, 그리고 완성품의 생산 방법에 관해 만약 금속제 컴퓨터의 사용이 아주 싫지 않다면 인간이 사는 주거시설 내의 노동, 즉 가사는 종래와는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스스로 자신을 수선하고 충전하면서 거주자의 필요에 자동적으로 응답하는 ‘가정용로봇’을 생각해서 보기 좋게 제조할 수 있다면, 영양이나 위생, 오락면에서, 예를 들어 집주인의 말만으로 준비되는 식사, 적당하고 기분 좋게 데워진 목욕물, 좋아하는 채널이 금방 나타나는 TV 등, 인간과 같은 외관을 지닌 자동적으로 일하는 심부름꾼 로봇들에 둘러싸여 쾌락을 맛본다는 것도 반드시 꿈만은 아닐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생물학이 개입할 분야이다. 금속제와의 접촉이 ‘따뜻함’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생물로봇을 만들 것이다. 이 생물로봇은 생명물질로 제조되어 인간이 바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된 로봇이다. 그렇게 되면 지성을 가진 생명체를 노예취급 할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지성이 있는 ‘생명’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생명물질의 합성에 성공한 단계에서 생물학적 생명물질로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바꾸는 것인가?

그런데 노예취급이란 회초리로 때리거나 굶기겠다는 위협으로 그 생명체의 의지에 반하는 노동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을 하고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유전자상에 프로그램 된 생물로봇은 어떤 경우에도 그 노예상태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자는 것과 똑같이 완전한 자유의지에 따라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도록 그것은 프로그램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마도 인간과 외견상 똑같은 생물로봇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유전적으로 특이한 특징을 부여하거나 특정의 물질을 항상 몸에 부착시키게 함으로써, 또는 이마에 돌이나 링을 박거나 함으로써 외견상 차

이를 곧 알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다.

컴퓨터와 똑같이 이들 생물로봇은 스스로 자기재생이 불가능하게 하고 직접 개발해서 대량생산하거나 유성생식, 또는 삽목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재생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외관상 인간과 너무 닮지 않도록 만들어서 노예반대론자의 심리적 장벽을 제거해 주는 것은 쉬울 것이다. 사람의 얼굴을 한 노예보다는 개의 얼굴을 한 노예 쪽이 아마도 저항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아랑드롱이나 브리짓트 바르도와 같은 얼굴을 가진 노예가 정감이 가고 기분이 좋을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 7. 화폐의 폐지, 즉 진정한 가치에로의 복귀

현대사회에 있어 인간으로서 개인에게 부여하는 가치는 흔히 그 재산에 비례한다. 작가, 화가, 발명가, 음악가, 연구자에 있어서도 돈이 없는 자는 세상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인간은 개인에게 특유한 가치보다 금전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강조하는 예로 “돈은 돈을 가진 자에게만 빌려준다.”는 속담이 잘 인용된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빌려줄 때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끄는데 있어서도 똑같이 진실이다. 비록 천재화가라도 길거리에 그림을 걸어 놓으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같은 화가가 저명한 화랑에 그림을 전시하면 세상의 여성들은 한없이 꿈속에 빠지게 된다. 음악가나 시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화폐의 인정은 화폐가 현대인의 눈에 가치를 갖는 유일한 물건이라는 의미이다. 현대화단에서 일류화가로 인정받기 시작한 내 친구인 한 화가는 그를 발굴(단어가 갖는 모든 의미로 *exploite*라는 단어는 개발하다, 발굴하다, 채굴하다, 이용하다, 착취하다, 악용하다 등을 뜻한다)해 낸 화상이 어떻게 해서 그를 출세시키고,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엄청난 값으로 그의 그림을 사도록 만들었는

가에 대해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처음 이 화상은 영화의 대스타에게 이 화가의 그림을 가져가 그의 그림이 대단한 투자(언제나 돈이 끼어들지만)가 될 것이라고 설득하고, 그런 다음에는 주요 신문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기자들에게 그림을 보이면서 이 젊은 천재화가에게 흥미를 보인 대스타의 이야기를 해서 이 젊은 예술가를 세상에 소개하는 기사를 쓰도록 하게 한다. 그리고 일주일쯤 후에는 그 그림이 막대한 값으로 아무 문제없이 팔릴 것이라고 하며 신문에 잘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렇게 세상에 소개하는 운동이 시작되면 다른 신문도 뒤따라 이 작품이 사람들이 다투어 가며 구하는 신진기예의 천재의 그림이라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는 텔레비전이.... 그런 다음 화상은 재계의 거물들에게 가격이 아주 높아지기 전에 아직 손에 넣을 수 있는 얼마간의 작품을 사도록 부추긴다. 거기서 기자들에게 보여준 그림은 1만 프랑에 그 거물에게 팔린다. 도매상에 맡겨 두었던 100개 가까운 그림은 금방 팔려 버렸으며 값은 그 뒤로도 계속 올라간다. 상류사회의 사람들은 그림을 서로 보여주며 자랑하고 모든 신문이 새로운 피카소의 출현이라고 대서특필하고 있는 유명한 이 그림 중 한 장을 시가의 두 배로 입수하려고 한다. 내 친구는 그동안 매달 많은 돈을

화상으로부터 받았다. 그 대신 3년간 매년 몇 장의 그림을 화상에게 그려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물론 몽마르뜨르의 집 앞에서 굶어 죽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창작한다는 정열은 전혀 없고 오직 돈과 이익에 따르는 과정을 거쳐 스타 예술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시스템의 추악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친구는 매년 그가 그려 주지 않으면 안 되는 25장의 그림을 그 착취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는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 그림들을 외관상 미끈하게 그려 주말쯤 적당히 완성해서 건네주고 일 년의 나머지 기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 남겨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는 계약이 끝나면 자신의 진짜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하더라도 천재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토록 어두운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화폐가 폐지될 때, 화가, 음악가, 발명가 및 연구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동시대의 한 화가의 그림을 손에 넣을 기회를 갖는 유일한 사람은 은행에 예치한 많은 예금밖에 어떤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화가가 그린 그림에 강하게 마음이 이끌려서

화가를 찾아온 사람이다. 그 정열과 감동이 너무나 커서 화가는 호의로 자기 그림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때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정착하는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엄청난 고가의 수집품으로 화랑을 장식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회화, 조각, 벽걸이 장식을 손에 넣은 사람은 예술가들을 가장 잘 평가하고 이해하며 최상의 정열과 우정과 사심 없는 격려를 보낸 사람들일 것이다. 개인적인 가치에 대한 예찬이 화폐에 대한 예찬을 대신하게 된다. 예술가들은 동시대에 태어나 자신들의 창작물이 탄생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으로 몸을 떠는 예찬자나 팬들과 함께 진정한 창작활동을 하는 것이다.

소유하는 것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이 화가가 되려고 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한단 말인가!

화폐가 폐지될 때 사람들은 “맨 처음이었던 자가 맨 마지막 자가 되리라.”고 한 바의 의미를 진실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 8. 가장 위험한 종파(Sect) : 군대

종교, 성, 정치 등 모든 면에서 자기와 다른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관용과 비폭력하에 자기개화를 이루는 사회, 이것이 미래사회의 모습이어야 한다. 인종적, 성적, 종교적 내지 정치적인 차별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원시적인 작태를 그만두고 자기와는 다른 사람들, 또는 자기와는 다른 생활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일도 이미 없어야 하는 것이다. 타인의 종교, 이것을 종파라고 말한다.

타인의 관능적인 생활, 이것을 악덕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일이야말로 더욱 더 관용할 수 있도록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면 2천 년 전에는 그 사람이 하나의 종파에 속한다 하여 어찌면 사자우리에 던져졌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그 자신이 당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방법으로 새로운 종교에서 가치 있는 길을 발견한 젊은이들을 재판하려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내 이웃사람이 자기 배꼽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선언하고 게다가 천 명의 사람들에게 온 좋게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 이들이 그 사람을 위해 옥좌를 짓는다고 하자. 이 경우 그들이 그것을 바라는 만큼 그들 스스로도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승인한다면, 그들의 종교를 자유로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타인의 신앙이 당신의 마음을 혼란시킨다면 그것은 당신이 생명과 세계에 대한 당신 자신의 관념에 있어서 확신을 갖지 못한 까닭이다.

성생활에 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자가 하루에 세 번 성교를 함으로써 성적 평형을 유지하는 생물학적 리듬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그들을 변태성욕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기 자신의 고유한 리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타인의 관능적 생활이 악덕으로 간주되어 온 원인이다.

공인종교 이외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세뇌의 희생자가 되어 온 것을 생각하면 사회는 아직도 관용정신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동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불관용의 정도가 과도한 경향이 있다.

누구나 자신의 육체적 평형이나 정신위생에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유로이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지나간 중세의 ‘종교재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 다만 그것이 이전의 고문보다 더욱 교묘한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다를 뿐이다. 결국 정신이상으로 인정해서 그 사람을 의학상의 보호처분, 즉 정신병원에 수감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병원은 자칭 자유의 나라들에 있어서도 정신상 혹은 종교상의 ‘이단자들’을 위한 ‘강제수용소’와 똑같은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소련에서 반체제파를 강제수용소에 보내는 것과 같은 세뇌가 행해지고 있듯이, 비전체주의 국가나 전통적인 대종교에 있어서는 이미 추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똑같은 수단이 감행되고 있다.

사람들은 곧잘 특정 신흥종교(흔히 경멸적인 의미를 붙여 섹트---종파---라고 부른다)가 그 젊은 신도들에게 가하고 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폭력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신 및 육체적 폭력을 행해 온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가장 큰 공인된 세뇌사업인 병역에 관해서 사람들은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도대체 젊은 소집병은 어떤 꼴을 당하는 것일까? 맨 먼저 각종의 물리적 변형(머리깎기, 제복착용 등)에 의해 개성의 박탈이 최대로 행해진다. 다음, 개인의 본래 개성이 약해지면 이번에는 군대가 기대하는 별도의 개성을 부여하기 위해 조건부가 행해진다. 이것은 기계적 동작(도보, 전진, 차려 등)을 심어 주기 위한 교련에 의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일거리를 주고 휴식시간은 아주 짧게 해서 사색할 시간을 주지 않고, 또 식사는 양이 적고 질이 나쁜 것(단백질 결핍으로 뇌가 징벌에 민감해진다)을 줌으로써 앞서 조건화에 의해 만들어진 개성을 통제한다. 언제 받을지 알 수 없는 징벌이라는 다모클레스의 검(머리카락 한 개로 머리 위에 매달아 놓은 칼 : 끊임없는 위협을 의미함), 잡역이나 며칠씩 계속되는 엄격한 외출금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정신적인 폭력은 항상 존재한다. 상관은 항상 옳다는 이유로 그것에 대해 호소할 수단도 주지 않는 육체적 폭력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병역이야말로 세뇌의 진짜 온상이므로 세뇌라는 주제가 주목받고 있는 이상 병역에 관해 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한 조건화 조직에 있어서 젊은 소집병이 불안을

지구를 개화와 행복의 세계로 만들기 위한 제안

느끼지 않고 편안한 기분으로, 특히 그 의미를 이해함 없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이 행해진다. 이것이야말로 세뇌과정의 목적이다. 그것은 명령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인간이든, 어떤 수단에 의해서든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또 몇 백만이라는 주민이 사는 도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일을 간단히 행하는 로봇, 즉 꼭두각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현재 이렇게 조건화되었기 때문에 명령이 주어지면 몇 백만이라는 인간을 살육하는 보탄을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누를 젊은 이들이 세계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

여러 가지 ‘종파들’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 군대에서야말로 진짜 세뇌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젊은 소집병에 대해서 행해지는 군대의 과정은 단순하고 웅변적이다.

가. 개성의 박탈

나. 필요한 방향으로의 조건화

다. 이상의 과정(1+2)을 거쳐 얻어진 개성의 통제

게다가 놀라운 일은 군대에서 의식주를 제공받고 정

말로 끊임없이 갖가지 임무로 가득 찬 12개월을 마친 후 자유를 도로 찾았을 때 젊은이들의 상당수가 민간에서의 취직난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직업군인의 길을 스스로 택하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명령을 수행하기만 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조건 지어져 다른 일은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전의 ‘비밀군사조직’(1961 ~ 63 알제리아의 독립을 반대했던 우익비밀군사조직), 인도차이나의 군인, 외인부대의 병사, 미국의 ‘해병대’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이, 너무나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시민생활로 복귀했을 때 그들은 사회복귀에 실패하고 폭력과 강도생활에 몸을 내던지는 것이다. 천재정치에 의한 정부는 사회 그 자체에 대한 조직적인 세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나치스 당원과 같은 전범들이 “우리들은 명령을 수행한 데 불과하다.”고 언제나 책임회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소련에서 반체제파를 고문하고 있는 자들도 재판에서 자기들을 변호할 때는 똑같이 말할 것이 틀림없다. 알제리아, 인도차이나,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폭력행위에 걸린 자,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자에 관해서도

똑같은 것이다. 그들은 모두 다 같은 굴속의 너구리들이  
것이다. 군대야말로 인류의 제일 큰 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무책임하고 더구나 기회 있을 때마다 스  
스로 책임이 없다고 공언하기를 주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군대는 그들이 명령을 내렸을 때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살인의 책임을 젊은이들에게 떠맡기고, 만약 자기들  
이 비난을 받을 경우 자기들은 단순히 명령의 수행자에  
불과하다고 말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계산하  
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

정신적으로 정상인 사회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자기가 범하는 폭력에 대  
해서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지며, 또 명령을 실행한  
경우는 명령을 내린 자와 똑같이 명령을 실행한 자도 무거  
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납득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말살하려고 살인청부업자  
를 샀다고 할 때, 그 살인청부업자가 명령을 시행한 것뿐  
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직무가 무엇이든 여러 가지 의미로 책임 있는 인간  
에 의해 사회가 구성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

다른 사람에게 발포를 허용 받은 총살반의 모든 인간  
은 살해명령을 내린 자와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인간이 제복이나 직무를 구실로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거부하는 날이 도래할 때에 세계평화의 실현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죄 없는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모든 재판관과 배심원은 그 사람이 스스로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때는 부당하게 부과된 처벌과 똑같은 벌을 받거나, 혹은 적게라도, 관련된 부정의 희생자가 실제로 받은 벌과 똑같은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언제나 좁은 도량으로 자주 근거가 희박한 추측이나 ‘심증’을 바탕으로 유죄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나 배심원도 더욱 더 진지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9. 어떻게 군인을 입 다물게 할 것인가

만약 1914년의 전쟁 이후에 과학자들이 그들의 연구 성과를 각자가 소속한 국가의 정치, 군사적 권력자들에게 주지 않고 ‘중립국’에서 공유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935년 경 과학자들은 재래의 군대를 압도할 수 있는 지식---이 지식은 그들 없이는 정말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이 자신들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자각했을 것이고, 1939년부터 45년까지의 전쟁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히틀러도  $V_1$  과  $V_2$  (제2차 대전 중 독일이 런던 공격에 사용한 무인로켓탄)를 갖지 못했을 터이고 미국도 원폭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평화적인 세계기구만이 이 무기를 소유하고 나치스의 압제자들이 큰 손해를 끼치기 전에 이 무기의 사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푸른 헬멧을 쓴 UN군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강대국에 대해 비교가 되지 않는 장비밖에 갖추고 있지 못한 정치적 억지력만을 갖는 군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만일 군 장비를 발전시켜 온 과학자들이 평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면 내가 앞서 말한 1914년부터 35년까지의 예(중립국에서 과학자들의 단결에 의한 전쟁회피)는 당장에 실현되었을 것이다.

알기 쉬운 예로 전쟁이 백병전(단도, 칼, 창, 화살 등을 사용하는 전쟁)이었던 시대를 돌이켜 보자. 만약 최초의 화기(총이나 대포)를 완성시켰던 당시의 과학자들이 정치, 군사적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서로 손을 잡았다면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1870~1914년 기간에 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만일 당시의 과학자들이 새로 생긴 비행기나 자동차만을 개발하기 위해 단결을 결의했다면 전쟁 주창자들을 입 다물게 해서 1914~18년의 전쟁(제1차대전)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려고 하는 현대라는 시대이다. 만약 과학자들이 지금 단결한다면 현재 군대가 보유하고 있는 병기가 외관상 놀라운 것이라 해도, 10년쯤 후면 과학자들이 현재의 병기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만들고 최후의 완고한 정치 군사적 장벽(권력가)에 대해 세계평화를 명령할 수 있는 신무기를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대병기의 기초가 되는 모든 발명을 해온 천재들이 이 병기들의 효과를 없애고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수단을 발명하는 일은 별 어려움 없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비폭력적인 세계정부군의 특별부대가 저장된 핵무기나 세균병기를 파괴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 출동하는데 필요한 시간, 즉 몇 시간 동안만 신체를 마비시키는 과동을 투사하는 비폭력적인 수단의 발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 10. 유전증명서 제도의 창설

“만약 우리들이 인류라는 종의 퇴화를 막고 싶다면, 양 쪽 성의 최상의 사람들끼리의 결합을 장려하고, 최악의 결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플라톤(Platon)

도태나 그렇지 않으면 퇴화나, 이것이 생존하는 모든 종에 있어서 존재하는 유일한 선택이다. 인간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

인간도 유전상의 자기도태를 행하든가 아니면 퇴화해 갈 것이다.

자연도태는 동물의 모든 종에서 존재한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인간에 있어서도 자연도태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 자연도태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은 퇴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 퇴화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자연도태를 인공도태로 바꿔 놓는 것이다. 다만 그것은 나치의 범죄자들이 했던 것처럼 살아 있는 인간에 대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하기 전에 유전학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미 비정상아가 탄생할

지구를 개화와 행복의 세계로 만들기 위한 제안

위험성을 체크하기 위한 혼전검진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7세대 전의 선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특질, 질병, 변형 및 결함을 나타내는 유전자 또는 염색체 증명서를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파트너와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할 때는 두 사람이 각자 유전증명서를 제출해서 전문가가 컴퓨터의 도움을 빌려 각각의 유전데이터로부터 비정상아의 출산확률을 가르쳐 주게 된다.

비정상아 출산의 위험이 있는 확률 이상인 경우 두 사람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갖는 일을 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유해한 유전이 없는 남성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이나 혹은 건강한 선조를 가진 여성의 난자에 부친의 정자를 수정시키는 즉 부친의 정자에 의한 수정란을 여성파트너의 자궁에 이식시키는 방법으로 아이를 갖도록 커플에게 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람은 식물이나 동물에 관해서는 도태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인간에 관한 것이 되면 갑자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인공도태의 시대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퇴화해 갈 것이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 11. 교육

“누구나 자기 자신의 기억력이 나쁜 것은 한탄하지만 판단력에 대해서 한탄하는 자는 없다.”

라 로쉬후커(La Rochefoucauld)

현재의 평균정치 체제하에서는 천재아동이나 저능아에게 똑같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급생이 수 일, 수 주, 수 개월 또는 수 년을 요하는 것을 단지 몇 분만에 이해하는 지극히 우수한 청소년들을 다른 동급생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제도는 우수한 청소년들이 공부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다. 학교의 교과과정은 중간, 즉 평균적인 아동을 위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수한 아동에게 평균적 아동이 필요한 반복연습을 시킴으로써 그들이 공부에 싫증을 내게 만든다. 여기서도 또한 「천재정치」는 각종 연령의 아이들에게 테스트를 받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 테스트는 천재와 수재를 선별해서 그들에게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테스트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7세 때와 중학

지구를 개화와 행복의 세계로 만들기 위한 제안

교에 입학하는 13세 때에 실시하면 될 것이다. 지극히 우수한 자---이들에 대한 현재의 교육은 전혀 충분하지 않다---에 대해서보다 지진이나 신체장애자 쪽에 현재의 비중이 치우쳐 있는 것은 실로 놀랄 만한 일이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평균이상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포심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은 모두 자국의 천재들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 우수아를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학교---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는 지금도 겨우 소수밖에 되지 않으며 이 두 ‘초강대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싹도 안 나는 평등주의를 구실로 초두뇌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천재들이 이러한 공부에 환멸을 느끼고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두뇌능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두뇌를 위축시켜야만 했던가.

교육개혁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진짜 지성, 즉 상상력을 희생시키고 기억력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은 몇 년이고 계속해서 ‘암기’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막대한 양의 정보를 젊은이들의 두뇌 속에 주입시키고 있다. 인간이 ‘암기’에 의해 배우고 있는 동안 그 기억력은 작동하고 있지만 그 지성은 그대로 잠들어 있는 것이다. 어떤 컴퓨터도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인간의 두뇌는 기억력이 아니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이미 중국의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준비시키지 않고 갑자기 시험을 치르게 한다. 시험관이 질문을 하고 젊은이들은 과제에 관한 참고서를 찾는 시간을 갖는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기억작용보다 훨씬 유익한 통합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글자의 굵고 가는 부분의 구별을 집요하게 강조하면서 우리들을 지긋지긋하게 만들던 ‘습자’의 열광적인 신봉자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들은 매일 볼펜을 사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가 계산기 위에서 풀리는 시대에 학생들을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방정식의 포로가 된 교사도 있다. 더구나 이 소형계산기는 이미 미국의 새로운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되고 있으며 타자기도 마찬가지로 인정되고 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세계 속에서 일어날 필요가 있다.

## 12. 여성의 지위와 발전도상에 있는 사람들

여성의 지위라는 항목으로 일 장을 쓴다는 그 자체가 성차별의 한 형태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으나 천재정치가 관심을 갖는 것은 성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이다. 그러나 여성경시 사상이 엄연히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이상, 아무래도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천재정치에 의한 정부에 있어서는 남녀 비율이 50씩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성이 아니라 오직 지성일 뿐이기 때문이다. 만일 남성이 근육면에서 여성에 대해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다 해도 지성면에서 여성보다 정말 우월하지 않다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다. 지성측정테스트만이 이 문제에 결부된 것으로, 가령 「세계정부」가 어느 날 75% 또는 100%의 여성으로 조직된다 해도 그녀들이 정말로 일반인보다도 지성적일 때 그것은 전적으로 정상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일은 지성측정 테스트가 정말로 ‘성의 차이

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남녀 쌍방이 이루는 심리학자들에 의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발전도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 자주 '미개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적합한 특별테스트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지성이기 때문이다. 그들 고유의 특징을 보존하기 위해 그들을 문명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방치해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안 될 말이다.

인종상의 소수 그룹이나 우리 문명보다 훨씬 뒤떨어진 사람들도 보호구역이라 불리는 지긋지긋한 인간 동물원 속에서 그 원시적 상태를 보존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한, 모든 생명체와 똑같이 적응해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멸해 가는 수밖에 없다. 만약 서양문명이 우수한 것이 아니라면 현재 인도나 비아프라 사람들이 프랑스 산악지대나 뉴욕의 기근 문제해결에 노력하는 것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풍요한 나라들에 뿌리를 박고 있거나 혹은 발전도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이 서양문명인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인종상의 소수 그룹에게 그들의 전통을 존중한다는 구실로 야만적인 풍습을 그대

로 유지시키려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여성혐오의 범죄행위이다. 최근 프랑스TV가 아직도 여성을 열등하고 더러운 존재로 간주해서 여성에게는 가장 나쁜 주거와 식사를 주고 남성의 영역을 여성이 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어떤 부족을 소개하고 있다!! 만약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노예제도를 행하고 있는 부족을 발견했다면 그들은 열심히 그러한 관행을 그만두게 하려 했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의 차별이 되면 아예 눈을 감아 버린다. 그것만이 아니다. 이런 부족의 풍습이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까지 말한다. 이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지구상의 어떤 집단도 이러한 성차별을 행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성차별이 남모르게 행해지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든 그것은 근절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서양문명 그 자신 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은 남성의 미래이다.”라고 어떤 시인은 말했다. 그가 말한 것은 확실히 옳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폭력적 세계는 사실 오직 남자들에 의한 통치가 계속된 결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자들이 전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바로 이때에 여성들이 발언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적어도 하늘의 전조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시인의 문구를 “여성은 인류의 미래이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히로시마를 파괴한 원폭투하의 명령이라든지, 런던을 향해 V로켓을 발사하는 명령이라든지, 세균병기를 제조하라는 명령 같은 것은 여성이라면 결정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여성은 생명을 대단히 존중한다. 그것은 적어도 생명을 주는 쪽이 여성이고 또 여성은 힘을 옹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결과가 여기 있다. 북아일랜드에서 행해지고 있는 데모는 여성이 세계평화의 확립에 한 원동력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 13. 인구문제

“만일 세상에서 바라지 않는 자식을 임신하지 않게 된다면 인구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인구문제심의회 부의장

생활공간의 결핍으로 “낳아라, 불어나라, 땅에 넘쳐라.”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다행히도 인간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인구증가를 조절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특히 프랑스국민의 자식들은 더욱 행복하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자식들의 수가 더욱 적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탄하는 무책임한 집단도 있다. 그들은 ‘인구가 증가하여 어느 날엔가 위협이 될 이웃 국민들’을 협박에 이용한다. 그러나 그들은 만일 모든 국가가 경제적인 경쟁을---이것은 절대로 피해야 할 일이지만---계속할 경우, 이 궁지를 가장 잘 벗어날 수 있는 국가는 보다 적은 부양인구와 일손 없이도 똑같은 생산을 가능하게 할 자동화를 갖춘 가장 인구가 적은 나라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정말 역사적인

기념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은 프랑스에서 1976년 인구 증가율이 멈추었고 게다가 조금 후퇴하기까지 한 것이다.

나이가 들어 자기들을 부양해 줄 충분한 수의 젊은이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두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자식의 수를 줄이도록 권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동화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오늘날의 어버이들은 자식들이 자기들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할 필요가 없는 세계를 건설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이 사실을 잘 이해해서 ‘필’(피임약)의 판매업자들의 농간에 속아 이익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필’과 같이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그 효과가 1년 내지 3년간 지속되는 약편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약회사는 발전도상국에서의 약편 판매를 보류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약편이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반면 정기적으로 사야 하는 ‘필’은 정말로 황금알을 낳는 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이익을 이유로, 다시 말해 값이 너무 싸서 기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여성의 무거운 짐을 제거해 주는 약편의 발견을 여성들로부터 탈취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

## 14. 재판

천재정치를 꼭 필요로 하는 영역, 그것은 재판이다. 실제로 타인을 재판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재판받는 자보다 더 지성적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재판하는 것을 어떻게 승인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의 천재가 우둔한 무리들에 의해 재판받는 것을 생각할 수나 있는 일인가? 그러나 이런 일이 지금 행해지고 있으며 또 당연히 통용되고 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가벼운 죄를 취급하는 배심원이 될 권리를 당연히 가져야만 하고 무거운 죄는 피선거권을 가진 자, 즉 천재들 중에서 배심원을 선출해야 한다. 범죄인에게 부과하는 지금의 형벌은 사실상 항상 재범을 유도하는 것이 되고 있다. 무의식중에 폭력을 행한 자를 교정할 수 있는 과학적 개입방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형벌이 사용되는데, 이 형벌은 실제로 범인을 개선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반대로 더욱 그들을 냉혹하고 무정하게 만들거나 한층 더 격노하게 만들뿐이다.

맥길(McGill)대학의 하인츠 레만(Heinz Lehmann)박사는 폭력을 초래하는 과도한 공격성을 소멸시키는 약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범죄인에게 이 물질에 의한 치료를 언도하는 쪽이 보다 합리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물질은 감옥과는 반대로 범죄인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사후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쪽이 바람직한 것은 분명하다. 머지않아 청소년의 공격성을 화학적인 레벨로 측정해서 본인이 범법 행동에 말려들기 전에 이미 말한 물질에 의해 결함을 치료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뇌의 세척이다. 범죄자의 교정, 즉 살인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들의 성격으로부터 제거하는 것, 다시 말해 그들을 10년 내지 20년간 투옥하는 사회---그것은 효과가 없음이 판명되고 있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뇌의 세척을 시행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어떤 이는 강조한다. 그 효과를 정확히 조절할 수 있는 화학적 개입 방법이 감옥에서의 수년간 보다 덜 야만적이라는 것이 단연 명백해질 것이다.

## 15.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청소년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확대받고 있는 아동들이 아니며 적어도 그들만이 문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18세가 되면 투표권을 인정받는 각 개인이 그 연령에 도달했을 때 개화되어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적어도 그 연령에 도달하기 전의 4년간은 개인적인 생활을 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즉 14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양친으로부터 독립적인 성적, 정치적 내지 종교적 생활을 할 권리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18세 이상의 사람과 그 미만의 사람 사이에 성적 관계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미성년자 유괴라는 죄를 부여하는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피임법에 의해 가능한 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청소년에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양친을 동반하지 않고서도 부인과에 가서 무료로 상담할 수 있고, 피임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또 양친의 허가 없이 모든 종교적 또는 정치적 운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양친이나 교사에 의한 14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자기의 외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가 좋아하는 복장이나 머리스타일 등을 선택할 자유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자기 집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양친의 허가 없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센터를 건설해 줄 필요가 있다. 양친이 이혼하는 경우 어느 쪽과 생활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를 청소년에게 주어야 한다.

기숙학교에 대해서도 거기에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청소년에게 주어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성적표는 폐지되어야 한다.

## 16. 개화 센터의 개설

모든 인간이 자기능력의 최대한도까지 자기를 개화할 수 있도록 세계의 모든 대도시 및 모든 지역에 육체와 정신의 각성과 개화를 위한 센터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가정환경에서 유래하는 장애가 원인이 되어 자기개화할 수 없었던 사람도 그곳에서 자유를 얻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로 개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7년 후 그들이 다시 테스트를 받을 때에 선거권자 혹은 그 이상의 피선거권자가 되는 것도 궁극적으로 가능하다.

이 센터에서는 심리학자, 성과학자, 철학자 등 전문가의 지도아래 잘못된 제 관념을 제거하고 다양한 명상기법에 의해 무한을 향해 마음을 열므로써 자기각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심리적인 장벽의 제1요소인 성의 개화에 대해 먼저 노력하고 다음에는 감각의 개화에 대해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화폐는 언젠가 폐지될 것이고 인간은 어떤 심리적 장애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성행위를 즐길 수 있게 될 것

이 틀림없다. 이 센터가 매춘을 완전히 폐지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거기서 남성과 여성이 자유로이 만나 상대방에게 쾌감을 주는 것만을 목적으로 상호 동의하에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심리학자나 성과학자가 가장 많은 문제를 지닌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자신의 기호와 같은 성향의 파트너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성교육은 중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지 않거나 가르쳐지고 있다 해도 매우 질이 낮은 것밖에 없다. 그것은 교사 자신이 여러모로 손발이 묶여 있거나 혹은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센터의 성교육이 단지 ‘어떤 구조인가’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냉정하고 기술적인 이론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쾌감을 얻을 수 있는가’를 포함하는 관능교육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 행해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고 진정한 개화로 가는 길임에 틀림없다. 이 이론상의 관능교육은 청소년이 자유롭고 독립된 성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완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의 자유로운 성생활은 정신과 육체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따라, 전문가의 입회에 의한 전면적 보장하에 동의한 파트너 상호간, 혹은 개화센터의 선주자(先走者)들 사이에 영위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지한 젊은 남녀에게 결정적이고 불가역적인 정신적 충격을 통해 폭력적

이거나 서투른 행동을 사전에 거의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대개 낙태로 끝나거나, 아니면 마지못한 결혼으로 인한 가정의 중압감에 청춘을 낭비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막대한 수의 바라지 않는 임신을 방지하는 것도 된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의 80%가 첫경험을 매춘부와 함으로써 기인하는 성병의 만연이라는 우리 시대의 재앙 중 하나가 거의 소멸될 것이다.

최신의 각종 피임법을 이용하면서 건전한 젊은이들은 불결한 매춘 속에서가 아닌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한 파트너와의 사이에서 아무 위험도 느끼지 않고 성의 쾌락을 언제든지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 17. 과학의 은혜에 의한 자연으로의 복귀

자연의 제 요소와 합치된 일종의 자유를 재발견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과학을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간은 최초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가로막고 있는 자연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인간은 생활의 전 시간을, 그것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사냥이나 고기잡이를 위해서 아주 하잘것없는 도구라도 그것을 만들기에 몇 시간을 필요로 했다. 농기구의 경우는 또다시 더 많은 시간을 요했다. 다음으로 산업시대가 되자 인간은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매일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비록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매일 중 몇 시간, 점차 매년 중 몇 개월인가는 살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일상적인 잡다한 일은 가정용 기구에 의해 경감되어 왔다. 땅에 꿰어앉아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하는 세탁에 매주 3시간을 소비하는 대신 현대여성은 세탁기에 분말세제를 넣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과학이나 진보를 거절하는 것은 이 편리함을 거절하는 것이며 공동세탁장

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향수를 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자기 스스로 속옷을 한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것을 바라는 여성이 있다면 그것은 그녀가 그 실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에게는 전원이나 산양, 또는 밭의 감자는 주말에 별장으로부터 바라보는 광경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만일 과학의 진보를 거부한다면 매일 아침 햇뜰 때 일어나서 산양의 젖을 손수 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산양을 위한 겨울준비로 손수 건초를 베고, 감자를 손으로 캐내고, 불을 지피기 위한 나무를 해 와야 하고, 입을 옷을 꿰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독서를 한다든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개화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그것을 위한 1분의 여유조차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바랄 수 없다. 퇴보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인간은 과학의 진보와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으로부터 불편을 견디면서 겨우 먹을 것을 얻는데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인간은 오직 그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노동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이미 화폐가 존재하지 않

게 되면 인간은 자연의 제 요소와 조화해서 자기개화를 위해 자연과 일치가 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거기서 생활하기 위해 자연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때 희망하는 자는 산양을 기르고 감자를 심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즐기기 때문이지 그들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 18. 지구어의 창출을 위해서

한 혹성으로서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참된 단결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세계어나 만국공통어가 아니라 지구어의 창안이다. 왜냐하면 한 혹성으로서 지구는 제 국가의 집단도 아니고 제 국민의 집단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종류의 언어 창안을 위한 시도는 에스페란토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에스페란토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기원을 두고 있으므로 역시 인류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동양인에게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라틴족보다 못하다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 혹성상의 모든 사람들이 승인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구어의 창출을 위한 해결 방법은 그 언어의 습득에 있어 어떤 인종도 유리한 입장에 두는 것이 아닌 100% 새로운 언어라야 하는 것이다. 즉 그 언어는 기존의 어떤 언어에도 의존하지 않는 100% 합성된 새로운 언어라야 한다.

따라서 가장 우수한 어학전문가들을 가능한 한 빨리  
집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이 장래에 모든  
지구인이 말하게 될 이 새로운 지구어를 창안하는데 컴퓨  
터의 도움을 빌어 연구하기 위해서이다.

이 언어는 세계의 모든 아동들에게 그들의 문화적 유  
산을 전달하는 모국어 또는 지방 방언과 더불어 제1의 언  
어로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국가(國歌)는 폐지되고 지구가(地球歌)  
를 작곡하기 위해 세계적인 작곡가들이 모이는 대규모의  
대회가 열릴 것이다. 이 지구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  
구의식을 싹트게 하기 위해 모든 공식행사에 앞서 반드시  
연주하게 될 것이다.

깃발에 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국기는 폐지  
되고 인류의 깃발인 지구기의 창출을 위해 세계대회가 열  
릴 것이다. 이 지구기는 모든 공공 건물위에, 또한 모든  
공식행사 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기와 함께 게양되지  
않으면 안 된다.

## 19. 과학의 보급

“어떤 기묘한 두 발 가진 동물은 다음과 같은 모든 특성을 겸비할 것이다. 즉 그것은 진딧물과 같이 수컷 없이도 생식할 수 있고, 연체동물인 앵무조개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암컷에게 수정시킬 수 있고, 소드테일이라는 물고기처럼 성을 전환할 수도 있고, 지렁이처럼 삼목 할 수도 있고, 도마뱀처럼 잃어버린 부분을 새것으로 바꾸어 가질 수도 있고, 캥거루처럼 모체 바깥에서 성장할 수도 있고, 또 고슴도치처럼 동면상태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장 로스탕(Jean Rostand) 생물학을 정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의 정의 : homo-biologicus

만일 어떤 사람이 길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몇 년만 지나면 실험실에서 과학적으로 생명체가 창조되고, 또 말하고 듣고 음악을 연주하며 자기를 재생할 수 있는 컴퓨터가 제조될 뿐 아니라 복제라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세포 하나로부터 한 사람의 인간을 재생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

는 것도 가까운 미래에 필시 가능해질 거라고 말한다고 하자. 그러면 순진하게 듣고 있던 상대방은 즉시 기막힌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 말한 것은 모두 실현되고 있으며 정말 존재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양식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 팀이 세계 각국에서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길에서 만난 남자와 과학적 현실 사이에 왜 이토록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과학의 보급이 아직 충분히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에 있어 과학을 위한 방송보다도 종교를 위한 방송 쪽이 TV시간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몽매주의적이고 사람들에게 죄악감을 강요하고 있는 신흥종교가 곳곳에 넘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 예를 들어, 일요일 아침 종교방송이 1회 행해질 때마다 그와 똑같은 시간대에 무신론적 과학보급자가 비물질적인 신의 특권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창조의 측면에서 과학이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종교 선전용의 영화가 방영될 때는 ‘이데올로기적 반론 발표청구권’에 따라서 무신론의 과학자들에 의한 방송이 함께 기획될 필요가 있다.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도 유아기부터 과학의 보급이 큰 비중을 차지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어린 자녀들을 교리문답에는 보내지만, 현대생물학이나 정보과학에 의해 명백히 밝혀진 멋진 사실들을 어린이들이 발견하도록 하는 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양친이나 전문기관에 의해 직접 받고 있는 종교교육에 상응하여 충분한 과학교육을 보급함으로써 균형을 회복시켜 어린이들을 몽매하게 만드는 행위나 시비(是非)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과학의 보급을 대항시킴으로써 아직 스스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민감하고 순응적인 어린이의 뇌 속에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보다 폭넓은 이유로서 개인의 어린 시기의 조건화의 과정에 과도한 주입을 피하기 위해 종교학교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것이다. 개인적인 종교의 자유는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성인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적 조건화가 제도화된거나 간과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거부해야 한다.

우주비행사가 있는 시대에 기도를 하면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미 허용되지 않는다. 비록 그들의 양친이 그들에게 그러한 것을 이야기한다 하

더라도 학교에서는 상당히 어린 시절부터 인간은 하늘뿐만 아니라 달에도 갈 수 있다는 것,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각기 아주 다른 내용을 설교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어떤 종교를 선택해도 문제될 것이 없으며, 지극히 건전한 사람들이라 해도 그들의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적’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과학적 현상’일 뿐이라는 것, 그러한 것은 현 단계에서 이미 설명되었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조만간 설명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회중전등으로 한 사람의 미개인을 간단히 놀라게 할 수 있듯이 레이저광선이나 영사막이 없는 3차원 영상과 같이 고도의 완성된 수단에 의해 소위 문명인들을 놀라게 하는 것도 간단하다고 가르쳐야 한다. 종교적 전통이 여러모로 암시하고 있는 널리 알려진 기적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명백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즉 2천년 전 원시인들에게는 비행물체를 타고 훨씬 진보한 문명으로부터 온 문명의 전체 인상은 불수레를 타고 온 신들로 보여 졌다는 것, 3차원 공간에의 투영은 초자연적인 출현으로 보여 졌다는 것, 현재 우리들이 우주에 발사하는 것과 같은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부터 날아온 사람은 ‘천사’로 보여 졌다는 것,

복제과정에 의해 하나의 세포로부터 죽은 자를 재생시키는 것이 기적적인 ‘부활’로 보여 졌다는 것 등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무엇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며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체 조건화를 막음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신념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일단 자유롭게 깊이 생각한 다음 동의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전체주의적인 강압교육은 배척해야 할 일이다.

## 20. 자유와 자주권의 존중

만약 2천 년 전에 그 사상이 방해가 되는 자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4백 년 전에는 그들을 화형에 처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쇠망치나 못과 산더미같은 (화형용) 장작 대신에 순교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방해자들을 정신병원에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는 종교나 도덕의 이름으로 행해졌지만 지금은 정신위생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이전에는 도그마가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과학이 사용되고 있다. 새로운 켈빈파(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기의 신교도들에 비유한 것)를 무리하게 개종시키기도 하고 억지로 규격화를 강행하기도 한다. 이상의 것을 읽고 있으면 독자는 소련의 반체제파의 경우를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먼 곳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멀리서 들리는 늑대울음소리에 정신이 빼앗겨 있으면 발 밑을 기어오르는 뱀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마련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1977년 현재 소위 프랑스와 같이 민주주의적이라고 불리는 여러 국가들의 이야기이다. 이 나라에서도 누구든지 정신병원에 수감하는 것이 가능하

며, 불행히도 그 대상이 된 사람은 정신과의사 앞에서 자기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정신과 의사는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재판관이기도 한데, 이런 일은 통상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모든 시장(市長)은 공공의 질서유지에 위협하다고 판단되는 관할의 주민을 검진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수감시킬 수 있다. 공공의 질서가 아닌 그 시장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와 같은 형태로 수감된 그 사람이 이제 격분한 행동으로 인해 정신과 의사에게 정말로 위협한 인물로 판단되어 정신병원에서 일정기간 감시받게 된다는 것은 다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정치생명은 영망이 되고 더욱이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것은 사법제도의 담장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재판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소련에서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나거나 행해지고 있는 일이 앞으로 똑같은 규모로 프랑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이 일단 일어난 후에는 대책을 강구

하는 시도가 반체제파의 책략으로 여겨져 또 다른 정신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보여 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아직 늦지 않았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맨 먼저 비난받을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신병원에 수감을 청구할 권리를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 정신병원에 수감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전에 공적인 재판을 열고 본인에게 자기방어를 위한 수단을 주어야 한다. 특히 당사자에게 자기방어를 위한 변호인이 될 정신과 의사를 선임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신과 의사는 의뢰인의 정신상태를 심사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그의 외관이 다소 남다른 점(이것도 하나의 성격이다)이 있다고 해도 사회에 물리적 위험을 줄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타인에 대해 물리적 위험을 주는 행위는 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사상도 도덕에 대한 위험성이라는 이름아래 억압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체제파를 추적하는 현대판 종교재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정은 검찰관의 역할을 행할 1인의 정신과 의사와 재판관의 역할을 행할 3인의 정신과 의사, 그리고 최후로 배심원의 역할을 행할 1인의 피선거권자, 즉 천재에

의해 구성된다.

정신병원 수감에 상당하는 판결을 받은 환자는 처음 출정 이전에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수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소할 수 있으며, 다른 관할에 속한 법정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환자는 치료기간 중 치료과정을 감시하고 치료의 진전에 따라서 병원으로부터 퇴원을 요구하는데 변호인인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은 개성의 박탈이라는 예기치 않은 사고의 예방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환자가 가능한 한 빨리 수용시설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는 공정한 변호인을 정신과 의사로 두고, 그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격려도 되고 치유의 촉진 요소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이 정신과 의사에게 외출하고 싶을 때는 상담을 함으로써 외출에 대한 시비를 결정해야하는 불쾌감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서 폭력성을 제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개성을 박탈하는 것은 범죄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성박탈이 감옥에서 때로는 화학적으로, 또 외과적으로, 기타 모든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개인들을 용납하지

않는 대단히 곤란한 경향이 프랑스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한 것 중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중요시하지 않는 잘못을 범한 한 예가 있다. 기 드류(Guy Druet)가 올림픽경기에서 우승한 후 혁신적인 제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프랑스경기연맹’이 챔피언인정증서의 교부를 거절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한 사람의 운동선수가 스포츠계를 지배하는 당국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의견, 요컨대 반대파의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경기활동을 방해받는다면 그것은 파시즘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조직이 이러한 압력수단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문제되는 매우 중요한 억압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가 양식 있는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해서 비난을 받거나 사생활을 침해받아서 안 된다. 이와 같은 압력수단을 감히 이용하는 자들은 이미 그 이상의 직무에 머물 자격이 없다. 불관용이나 파시즘에의 무관심은 그것과 싸우지 않는 자 모두를 언젠가 그들 자신에게 내려 덮일 위험의 공범자로 만들 것이다. 그것은 경기연맹에서 시작되고 강제수용소에서 끝나는 것이다.

## 21. 여론의 규격화 : 가장 큰 위협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TV이다. 확실히 TV는 많이 시청되고 있으며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 일어난 일도 즉각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상호이해와 진정한 의미의 지구의식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TV는 곧 인류의 중추신경을 구성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협은 대중의 반응을 좌우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데도 TV가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저널리스트는 생생한 정보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섞지 않고 제공하는데 만족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대중은 점차 해설자가 자기의 의견을 덧붙여 사건을 보도하는 이른바 ‘개성적인’ TV뉴스를 허용해가고 있다. 만일 논평가가 존재하고 사람들이 그 기호나 정치적 경향에 따라 선택의 자유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국영방송을 통해 이론상 객관적으로 보이는 의견발표에 있어 형편없는 해설자의 모든 주제에 관한 의견을 꼼짝

없이 들어야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분명 해설자는 정치문제에 관한한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견의 표명을 주의깊게 피하고 있지만, 그밖의 잡다한 사실---때로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수반하고 있는---에 관해서는 그때그때의 기분이나 사사로운 의견을 자유롭게 방송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즉 한편으로는 해설자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똑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기쁘게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 분야별 정보’해설자의 말에 의존해서 자기의견을 세우기를 원하는, 현재 자기의견을 갖고 있지 않은 다수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여론의 반응에 대한 규격화, 국가가 관리하는 규격화에 버금가는 극히 중대한 규격화의 이러한 경향과 싸우는 방법은 TV방송에 어떠한 해설도 붙이지 않고 생생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항상 두 사람의 저널리스트의 말을 방송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한 사람은 사건의 부정적 측면을 담당하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사건의 긍정적인 측면을 담당해서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대중은 거듭 몽매하고 중심이 없는 일방적인 의견에 의해 조건지어짐 없이 사건의 여러가지 측면

을 받아들여 스스로 하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각각의 정보가 한 사람의 '중립적'인 기자, 한 사람의 '검찰관적 기자, 그리고 한 사람의 '변호사'적 기자에 의해 제공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다가 보다 오히려 우려해야 하는 다음 문구, 즉 '무엇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는 이미 듣지 않아도 되고, 대신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를 듣고 싶어 할 것이다. 인간에게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이 '가능한' 것이다. 위에 언급한 두 개의 문구가 매일 TV나 신문의 화제에 오를 때는 사상의 자유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투쟁에 의해서 그것을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지금이 그것을 생각해야 할 시기이다. 세상이 어떤 특정의 방식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할 때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반체제파로 생각하는 때이다.

## 22. 황금시대

과학자와 ‘길에서 마주친 남자’와 사이에 존재하며 점점 커지고 있는 이 간격은 최근 우리 문명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고 있는 경이적인 일을 이 길에서 만난 남자가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생명이 가까운 장래에 실험실에서 창조될 것이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든지, 또는 가능하더라도 몇 세기나 걸릴 것이라며 일소에 부칠 것이다. 그러나 10여개의 실험실에서 착실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거기서는 10년 이내 아니 내일이라도 그것이 달성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일의 세계는, 차라리 내일 아침---오늘밤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다면---의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그만큼 과학의 진보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점점 그 속도가 가속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제부터 함께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당신에게 예측이 반드시 현실을 앞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지구는 우선 첫째로 기후를 통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제로 낙원이 될 것이다. 바람 때에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며, 따라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밤에만 비를 내리게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노동이 완전히 로봇화됨으로써 한랭지역이나 거주하기에 불편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지구상에는 온난하고 기분좋은 기후지대에 설치되는 거주지역과 평온한 기후지대에 설치되는 농업생산지역, 그리고 불쾌한 기후지대에 설치되는 공업생산지역이 존재하게 된다. 인간의 수명이 점차 신장되어 급속히 130세쯤 도달하고 다음으로 좀더 지난 후에는 700세까지 신장될 것이다. 최후로 자신의 세포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자코드에 의한 사후의 재생을 통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바란다면 마침내 불사가 실현될 것이다. 이 유전자 채취기술은 클로닝(복제)이라 불리어지며 이미 식물이나 일부 소동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정부, 동일한 생산수단 및 동일한 언어를 갖게 되면 그들은 완전히 서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영화는 파동에 의해 뇌에 직접 감각을 전할 수 있는 장치에 의해 지금같이 시각과 청각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촉각 미각 촉각에 의해서도, 요컨대 오감 전부를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완전한 영화가 될 것이다. 영화필름은 시각적 청각적 정보 외에 그 밖의 감각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게 된다. 생물로봇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한 로봇을 소유하며 그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교육은 화학적으로 행해져서 현재 학교에서 수십 년 걸려 간신히 두뇌에 주입하고 있는 것을 수 분 동안에 배우는 것이 가능해진다.

모든 질병은 분자생물학에 의한 새로운 의학의 발달에 의해 극복되어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호나 필요에 따라 어린이의 개성을 메뉴에서 고르듯이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내면적 자기개화와 자신이 그 일부가 되는 무한과의 조화를 위해 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 23. 지극히 중요한 부언

다시 한번 강조해서 주의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말해 온 모든 제안이 구상(Idea)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또 천재를 인류에게 봉사하게 하기 위한 ‘세계천재정치’의 틀 안에서는 인종 종교 문화 혹은 지성수준에 따라 차별하는 일없이 이 지구를 전 인류를 위한 행복과 정의와 개화의 세계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계획을 제안하고 실시하는 것이 천재들 자신의 일이라는 점이다.

천재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명령하고자 바라는 것은 ‘천재정치’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상의 아이디어를 피력한 본인은 이것이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지구’의 영지에 넘치는 판단에 새로운 각종 아이디어를 정말 위임하는 역할을 다할 발명가회의의 한 아이디어로서 인정받게 될 것을 바랄 뿐이다.

## 제 3 장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의 수립

## 1. 지구의 천재들을 향한 호소

“비록 당신이 정치에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는 당신에게 관련되어 있다.”

몽뜨랑벨(Montalambert, 프랑스정치가)

세계의 과학자, 철학자, 예술가들이여, 단결하십시오! 당신들은 항상 당신들의 발명을 살육병기로 전용하고 당신들의 노고에 의한 작품들을 그들의 이데올로기 선전에 이용해 온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에 의해 이용당하고 배신받아 왔습니다. 당신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계획을 위해 당신들을 압박하고 강제적으로 일을 시켜 왔던 국가를 버리십시오. 우선 당신들의 연구, 발명, 노작의 성과를 당신들 자신 이외에 어느 누구의 이익도 되지 않도록 상품화하기 위한 조직의 설립을 위해 단결하십시오!

당신들이 생각해 낸 방정식이나 계산법을 파괴병기나 비참한 미사일 제조에 전용하기 위해 당신들을 노리며 스파이하고 감시하고 있는 이들의 기구를 버리십시오!

제네바로 오십시오. 거기서 한번 만납시다. 당신들이 종사하고 있는 곳에서 돈을 저축하기 위해 그대로 몇 개월 각자의 나라에서 일하고자 결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의 기초를 확립할 평화를 위한 세계센터에 협력, 정착하기 위해 와 주셨으면 합니다. 국경이나 정치 군사적 조직과 경종을 크게 울리고는 있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생태학자들의 클럽을 떠나 사실상의 ‘세계정부’를 수립하십시오.

세계주의자나 연방주의자들은 국가의 통치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지배자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을 은폐하기 위해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불간섭’이라는 구실아래 몸을 숨기는 ‘민족국가’의 체제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세계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것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의 밥줄이나 ‘자기들의 명성’에서 손을 떼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정치가들은 조국을 방위하기 위해서라는 구실하에 국경의 양쪽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믿는 분쟁을 조작하여---이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만---국민(최후까지 국민으로 거기 남아 있겠다고 한다면)의 눈에 그들의 보수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것을

차라리 즐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를 뛰어넘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체제에 의해 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그 체제의 폐지에 협력하리하고 믿을 만큼 사람들이 비상식적이지는 않겠지요! 현재의 지배자들이 그렇게 지성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의 돈줄에 관한 일이라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 이런 것들은 모두 너절한 것들 뿐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 즉 연구자나 천재들에 의해 조직되는 사실상의 세계정부를 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 없이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경제적, 정치적 뒷거래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민족국가들’로부터 그 혈액을 뽑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혈액이란 바로 당신들, 지구의 천재들입니다. 당신들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자각하십시오. 그리고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 또 자기들의 방식에 집착하고 있는 일부 특권계급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인류의 이익을 배려하는 단일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그곳을 빠져 나오십시오.

예술의 창조자인 당신들, 우리 형제들이여, 문명으로부터 잊혀진 당신들, 예술가들이여, 돈을 못 번다하여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해 온 당신들이여, 눈을 뜨십시오! 돈

을 못 번다고! 어떻게 그토록 오랜 세월 당신들은 이런 일을 허용해 왔습니까! 철학, 회화, 음악, 문학, 건축, 심리학, 연극 등에 도취된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굶주림에 지쳐 버리든지 아니면 손끝의 기술을 쓰는 노동에 무리하게 종사되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로부터 그들의 노작이나 창조의 성과가 약탈당한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모짜르트, 반고호, 프뢰벨 혹은 니체가 그들이 바로 그 때문에 태어난 일, 즉 창조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갱도 속이나 조립공장에서 그 일생을 끝마쳐 갔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은 ‘돈이 벌리지 않는 일’입니다. 인간의 행복이란 형태나 색채나 언어와 조화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돈이 벌리지 않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의 군사비는 예산의 50%인데 비해 예술문화비는 겨우 0.01%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시이저, 나폴레옹, 히틀러는 플라톤, 베토벤, 루골부제(건축가, 화가, 저술가)를 완전히 때려눕혔습니다만 그들은 대체로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E=MC$  (질량, 에너지 등가성의 법칙)=히로시마. 아인슈타인은 그의 모든 방정식을 휴지로 만들어 버리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만의 죽음이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과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자를 합성해서 DNA의 비밀을 밝혀내고 실험실에서 인간을 합성하여 창조할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군인들이 과학자들 곁에 다가와 앞으로 합성될 수많은 병사나 폭탄 속에 넣어 사람을 죽이는 세균병기 따위를 생각하고 탐욕스럽게 눈을 부릅뜨며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러한 계약을 거부하십시오. 나중이라면 너무 늦습니다. 계산을 그만두고 그것을 모두 휴지로 만들어 버립시다.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에 있는 연구센터에서 모두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그곳에서는 어떤 군인도 당신들을 징집하기 위해 출입하는 일이 없다고 당신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로부터 그 장난감을 빼앗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들이 없었다면 군인들은 아직도 칼이나 활로 전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약을 발명한 과학자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불꽃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그것으로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은 내연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은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폭격기를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은 약전을 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세균병기

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은 충분합니다. 눈을 뜨고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들은 바로 당신들의 등 뒤에 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그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당신들의 보고서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발명할 정도의 지성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그 제작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현자의 돌(옛날 연금술자가 찾아다닌 돌로서 금속을 금으로 만든다고 생각되던 돌)을 찾아 갖다 준다면 그들은 그것을 투석기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발명해 준다면 그들은 당신들에게 직책, 보수, 칭호, 훈장 등 무엇이든 줄 것입니다.

“제군, 전진이다.”.....비쥬아르(프랑스의 장군)가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단지 그 목적(연구성과를 군사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위해서 당신들을 움직여 갈 국립과학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은 연구와 자기진보의 꿈속에 빠져 연구를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지식의 한계를 넓혀가고 있지만, 그 순간 저들이 하이에나처럼 수확의 전부를 노리고 있는 것에는 눈치채고 있지 못합니다. 당신들의 지식 한 조각이라도 마루바닥에 떨어지면 그들은 그것에 달려들어 당신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기도 전에 그것을 무고한 민중을 살육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만 하십시오!

단결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것을 만드십시오.

세계의 과학자들이여, 당신들이 모스크바에 있든지, 뉴욕에 있든지, 북경에 있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의 유일한 정열은 지식이고, 당신들의 유일한 목적은 보다 나은 미래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인류를 진보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가들이나 그들의 집지키는 개(犬)인 군인들이 당신들의 연구성과를 그들 방식대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당신들의 ‘아버지’인 아인슈타인의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알고 있었다면”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미 당신들로부터 많은 지식을 배워서 막대한 양의 잡다한 병기를 쌓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병기의 효력을 없애는 방법을 제일 먼저 연구하십시오!

당신들 자신의 손이 될 발명품의 행진을 보십시오. 그러나 부디 당신들의 지식과, 그와 동시에 인류의 고삐를

손에 쥐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시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 안에서 단결하십시오.  
오.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 될 것을 대망하면서.

○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의 중추 : 세계의 두뇌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의 중추에 예술, 과학, 기술 및 철학의 천재들 전부를 결집하는 것은 사실상 인류의 두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인류를 거대한 인체에 비유하면 그 모든 뉴런(신경세포)에 해당하는 천재들이 결집하는 장소가 그 두뇌(결국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의 중추)이다.

이 센터의 지하에 매우 치밀하게 제작된 핵 피난처(핵 방공호)를 건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은 만일 세계적 분쟁이 ‘천재정치’의 창립 이전에 돌발했을 때, 임시 ‘세계정부’의 모든 천재들을 보호하여 또다시 수천 년이나 걸리는 과학의 더딘 발전을 기다릴 것 없이 하나의 문명을 재건하기 위해서이다.

## 2.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의 활동계획

○ 단기목표(3개월 ~ 1년)

가. 최초의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Gouvernement Mondial Genioctate : 이하 GMG라고 부름)를 형성하고 그 평화적인 발명품이나 창작물을 GMG의 이익을 위해 상품화하는 조직을 결성하기 위해 천재, 과학자, 발명가, 철학자, 그리고 예술가들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항구적인 세계센터를 수립한다.

나. 수재나 천재를 발굴하고 그들의 재능을 개화시키기 위한 학교를 설립한다.

다. 개인의 여가와 개화를 위한 센터를 설립한다.

라. 각국에 GMG사무국을 개설한다.

마. 세계의 천재정치주의자들의 연대를 위한 기관지를 발행한다.

바.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에 있어 천재정치를 주창하는 후보자를 지원한다.

○ 중기목표(1년 ~ 3년)

가. 본서에 전개된 일련의 기준에 따라 자기 개화하고 있는 거주자들로 구성되는 항구적인 하나의 공동체 (GMG의 천재들에 의해 규정된 경우는 2개)를 수립한다. 이 공동체의 기준으로서 예를 들면, 배급경제, 공공사무, 1년에 2주간의 노동이라는 방식으로 자동화나 로봇화에 의해 최소한으로 줄인 강제노동, 화폐와 병역의무의 폐지 등이 있다.

나. GMG의 세계센터로서 적어도 한 나라에 있어서 민주주의적인 권력을 확보한다.

○ 장기목표(3년 ~ 7년)

가. 현재 만들어진 병기를 박물관으로 추방할 수 있는 비폭력적인 절대병기에 의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살육하다 남은 모든 재고품을 자발적, 또는 억지력에 의해 강제로 폐기시킴으로써 GMG에 의한 세계권력을 확립한다.

나. 국경을 폐지하고 민주주의적으로 결정된 각 지역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를 수립한다.

### 3.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의 재원

임시 GMG수립을 바라는 각 천재(과학자, 발명가 혹은 예술가) 및 이 기구의 수립에 공헌하기를 바라는 전세계의 시민들은 그 수입의 10%를 세계본부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젊은 수재나 천재를 발견해서 육성할 수 있는 전문학교시설에 우리들의 자식을 보내고, 개인의 개화센터에서 바캉스를 즐기고, 언젠가 건설될 천재에 운영되며 배급경제가 이루어질 항구적 공동체에 어느 때가 될 때는 언제나 최종적으로 이주, 정착해서 GMG의 여권을 받으며, 그리고 세계의 천재정치주의자들의 연대를 위한 기관지를 받는 대가로서 세계정부의 수립을 위해 지불하는, 이를테면 세계세(世界稅)라고도 말할 수 있다.

#### 4. 마지막으로, 제네바에 최초의 천재정치에 의한 세계정부를 수립하는 일

1977년 9월 9일은 역사적인 날로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날 제네바의 라마다 호텔에서 최초의 ‘세계천재정치운동’의 창립총회가 열린 것이다.

스위스 국적의 기사 장 클로드 루유(Jean Claude Reuille)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이 중추적 운동의 초대의장으로 선출된 명예를 영원히 갖게 될 것이다. 그를 둘러싼 창시자들 중에는 한 사람의 프랑스 화학기사, 한 사람의 스위스 뉴스전송기사, 심리학자들, 그리고 한 사람의 신중한 비서와 한 사람의 간호사가 있었다. 이 선거는 전적으로 임시적인 것이어서 평균정치의 방식으로 행해졌다. 이 운동의 창시자들 자신에 의한 ‘천재정치’의 시행에 필요한 그들 자신에 대한 테스트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다시 수개월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천재인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설사 자신이 선거권자로서 충분히 지성적이거나 또는 반대로 선거권을 가질 수 없음을 알았다고 해도 어느 쪽이든 간에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갖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욱 지성적이기를 바라고 있다.

만일 당신들이 그들에게 찬성한다면, 첨부한 입회신청서에 즉각 기입하여 아래의 주소로 보냄으로써 그들의 운동에 참가할 수 있다.

MOUVEMENT

POUR LA GENIOCRATIE MONDIALE

Case Postale 562

CH 1211 GENEVE 1

SUISSE

이에 따라 충분한 수의 천재정치주의자들이 나타나면 즉시 최초의 특별총회의 날짜와 장소를 당신들에게 알릴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 힘을 모아 특히 각 지역연방을 형성한 후 핵 피난처의 건설을 촉진해 온 이 중립국의 제네바에서 최초의 임시 GMG를 창설하게 될 것이다.

다가올 몇 개월 사이에는 많은 나라에서 선거가 행해진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들이 이미 이번 선거에 있어 천재정치를 표방하는 후보자를 내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비록 당장에는 승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장래의 도입에 대비해서 ‘천재정치’를 크게 여론에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각국에서 다가올 선거에 천재정치를 표방하는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국민적 규모의 운동을 일으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운동의 창시자가 되십시오. 이 운동의 근본목적은 우파도 좌파도 아니며 그들을 초월해서 논쟁이나 당파를 떠나 지성을 등불삼아 인류를 구제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당신들에게 당신들의 나라에서 ‘천재정치운동’의 최초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지방 혹은 지역의 최초의 대표단을 조직하는 것을 기대하고 싶다.

천재에게 권력을 주어야만 한다는 데 당신은 찬성하십니까? 그렇다면 펜을 잡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 라엘리안 무브먼트에 대하여

이 책의 저자 클로드 보리롱 라엘은 1973년 12월 13일과 1975년 10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외계로부터 온 엘로힘과 회견하고 그들이 인류에게 전해달라는 일련의 메시지를 위탁받았다. 그는 이 메시지를 3권의 저서로 출판하고 1975년 말 스위스 제네바에 국제 라엘리안 무브먼트를 창설했다. (라엘이 쓴 3권의 책은 한국에서는 「우주인의 메시지」 I, II로 출판되었음.)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기본 목적은 첫째로 인류의 창조자 엘로힘(Elohim)이 마지막 예언자 라엘(Rael)을 통해 인류에게 보낸 메시지를 전 지구상에 전파하고, 둘째는 엘로힘을 지구상에 맞이할 대사관을 건설하는 것이다.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이상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또 참여의 정도가 다르더라도 이들을 모두 인류의 의식을 진보시키는 무브먼트에 합류시키기 위해 조직되었다.

무브먼트의 활동상황 및 발전에 관해 정보를 알고자 하는 단순한 관심자들은 기본 회비를 내고 무브먼트의 뉴스레터를 신청할 수 있다.

무브먼트를 돕거나 대사관이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메시지를 퍼뜨리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라엘리안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메시지를 연구하고, 그 지역의 가이드를 도와주며, 몸과 마음을 여는 각성세미나에 참가하고, 그외 무브먼트가 조직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라엘리안 무브먼트에 회원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끝으로, 메시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공적인 장소에서 메시지를 발표할 수 있고, 그 지역의 라엘리안들을 모아 지역 내 전파활동을 효과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가이드(Guide)가 될 수 있다. 가이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제 라엘리안 무브먼트에 회원가입신청을 해야 하며, 가이드세미나에 참가해서 필요한 훈련을 받은 후 최고가이드에 의해 가이드로 인정된다. 가이드가 됨으로써 우리들은 창조자들에게 가장 잘 봉사하는 것이 된다.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진실을 밝힘으로써 원시적 관념들을 비신비화시키는 사람들을 통합하고, 우리자신이 우연한 돌연변이의 연속의 결과이거나 변덕스러운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우주에서 온 다른 인간들의 뛰어난 지적 행위의 산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지 않고 똑바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들의 도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활동그룹이다.

이 메시지를 읽고 이야기하는 당신과 똑같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다음 주소란에 명시된 당신의 나라의 라엘리안 무브먼트에 편지를 쓰면 된다.

도서출판 메신저가 발행한 책의 내용소개

# 「우주인의 메시지 I」

## 제1권 진실을 알리는 책

(첫 번째 메시지, 1973년 12월 13일)

### 제1장 최초의 만남

### 제2장 밝혀진 진실

- 창세기
- 노아의 대홍수
- 바벨탑
- 소돔과 고모라
- 아브라함의 제물

### 제3장 선민을 지켜보다

- 모세
- 예리고의 나팔소리
- 텔레파시 능력자 삼손
- 엘로힘을 위한 최초 거주지
- 예언자 엘리야
- 빵의 기적
- 에제키엘의 비행접시들
- 최후의 심판
- 사탄
- 인간은 이해할 수 없었다

### 제4장 그리스도의 사명

- 수태
- 비법의 전수
- 경쟁관계에 있는 행성문명
- 과학이라는 기적
- 유산을 받을 자격

### 제5장 세계의 종말

- 1946년 신기원 원년
- 교회의 종말
- 이스라엘 국가의 창건
- 교회의 오류

- 모든 종교의 기원
- 인간은 우주의 병
- 진화, 하나의 신화

## 제6장 새로운 율법

- 천재정치
- 인도주의
- 세계정부
- 당신의 사명

## 제7장 엘로힘

- 핵무기
- 인구문제
- 불사의 비밀
- 화학적 교육
- 라엘리안 무브먼트

# 제2권 우주인은 나를 그들의 행성에 데려 갔다.

(두 번째 메시지, 1975년 10월 7일)

- 서문

## 제1장 최초의 만남이 있기까지 나의 생활

- 벌써 2년이 지나다
- 유년기의 앙베르 상공의 UFO
- 드루이드교단의 법왕
- 시
- 만남
- 강연활동

## 제2장 두 번째의 만남

- 1975년 7월 31일의 목격
- 두 번째 메시지
- 불교
- 신도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
- 지상낙원
- 다른 세계
- 고대의 예언자들을 만나다
- 낙원에서의 즐거움
- 새로운 율법
- 이스라엘 국민에게

## 제3장 마음을 여는 열쇠들

- 서론
- 인간
- 탄생
- 교육
- 관능교육
- 자기완성
- 사회, 정부
- 명상과 기도
- 엘로힘과 텔레파시 교신을 위한 방법
- 예술
- 감각명상
- 인간의 정의
- 과학
- 인간의 두뇌
- 계시의 시대
- 텔레파시 교신
- 보상
- 가이드

# 「우주인의 메시지 II」

## 제3권 우주인을 맞이하자

(인간은 실험실에서 과학적으로 창조되었다.)

- 서문
- 라엘30년(1976년) 10월 7일의 출현
- 엘로힘의 메시지: 라엘32년 3월 14일
- 새로운 율법의 수정

### 제1장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문들

-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 사이에서의  
외견상 모순점
- 엘로힘의 창조작업 연대결정
-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
- 라엘리안 무브먼트와 돈
- 시간과 공간 속에 일정불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세포설계도의 전송과 액골의 보존
- 지구는 신의 손가락의 원자인가?
- 노아의 방주---하나의 우주선
- 사후의 생명, 꿈인가 현실인가?
- 엘로힘의 과학적 진보의 수준
- 신도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엘로힘과 유전자코드는 존재한다.
- 무한의 종교
- 기존 종교들의 장래
- 라엘리안 무브먼트와 천재정치
- 창조자들의 창조자는 누가 창조했나?
-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 쾌감(기쁨)이란 무엇인가?
- 죽음이란 무엇인가?
- 성적인 자유와 의무
- 라엘리안 무브먼트와 동성애
- 유신론자와 진화론자: 허위예언자들
- 자살

## 제2장 새로운 계시

-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그를 만났다.
-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 지구인에게 보내는 아훼의 메시지,  
최후 핵전쟁에 대한 계시

## 제3장 무신론적 종교

- 날개없는 천사들
- “책임감의 마비”

## 제4장 라엘리안의 논평과 증언

- 과학의 눈으로 본 라엘리안 사상
  1. 진화, 반계몽주의, 그리고 신다원주의적 신화
  2. 인류역사에 대한 새로운 가설
  3. 세 포설계도의 전승에 대한 과학적 고찰
- 어느 “사제”의 인상
- 그렇다, 나는 라엘리안이다!
- 나의 성직의 재확인
- 방사능으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 마르크스주의에서 라엘리안으로
- 삶의 새로운 기술

# 「감각명상」

- 서문(1) □ 서문(2) □ 서문(3) □ 프롤로그

## 제1장 시계는 시계공이 알고 있다

## 제2장 완전한 각성에 이르는 단계들

## 제3장 자기자신에 대한 자각

- 인간---자기프로그래밍과 자기재생이 가능한 생물컴퓨터
- 성의 분화

## 제4장 자발적 비프로그램화

- 사랑인가, 이기주의인가
- 습관은 어떻게 우리들의 능력을 감퇴시키는가
- 이 순간을 붙잡자
- 마스터베이션---필요불가결한 하나의 과정
- 마음을 비우자

## 제5장 자발적 재프로그래밍

- 참된 기호의 발견

## 제6장 감각명상 프로그램

- 카세트 제1권 : 무한과 조화한다
- 카세트 제2권 : 생명의 리듬을 의식한다
- 카세트 제3권 : 우리들의 몸을 의식한다
- 카세트 제4권 : 무한의 상징을 바라보며 명상한다
- 카세트 제5권 : 타우주의 발견---우리들의 파트너
- 카세트 제6권 : 상호쾌감을 위한 에로스화

## 제7장 감각명상센터

- 가이드의 역할

## 제8장 개인적 체험기

## 감각명상테이프 :

육체의 각성은 정신의 각성을 이끈다.

감각명상을 읽으신 분들 중 제6장 명상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대로 몸과 두뇌를 각성시켜 최고의 효율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가장 과학적인 자기훈련 도구로 제작된 감각명상테이프(제1번: 무한과 조화한다, 제2번 생명의 리듬을 의식한다)를 구입하여 직접 수련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6단계로 구성된 명상프로그램 중 제1번과 제2번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과중한 사고편중은 신체의 자율조직체계에 충분한 휴식과 에너지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생체조직의 물질 및 에너지 대사의 균형을 교란시키고, 이 불균형은 신체의 자연적 리듬을 저해하여 질병이 초래됩니다.

명상테이프를 통한 훈련은 일단 사고를 휴식시키고 우리들의 주의력을 신체의 각 부위로 돌림으로써 세포조직에 의식에너지를 보내 세포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 세포를 연결해주고 신체를 하나로 의식하게 함으로써 세포 상호간, 또 두뇌-세포간의 조화상태를 유발하여 전 조직체가 조화로운 리듬과 효율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전 세포에 의식 에너지를 흘려줌으로써 세포

의 기능이 활성화되면 세포의 감각이 눈뜨게 되고, 이 감각은 전 신체적 감각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이러한 전 신체적 감각이 두뇌의 직감(텔레파시)능력을 발달시켜 뛰어난 감수성과 사물의 전체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각성은 곧바로 정신의 각성과 연결되며 모든 감각의 월등한 감수능력 개선과 높은 의식적 각성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신체는 자연적 리듬-활력과 평안-을 되찾고 정신은 평정과 조화상태에 머물게 되며, 보다 완전한 자기의식의 개화, 즉 우주의식-에로의 확대를 추구하게 됩니다.

육체가 민감해짐에 따라 육체는 스스로 유해한 물질의 유입이나 작용을 판단, 배척하는 경향을 가지므로 술, 담배, 마약, 커피 등의 중독 상태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두뇌가 각성된 의식상태에 있게 되면 매사의 의식적 사고와 판단에 능률을 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자신감, 평정, 조화능력이 생활과 대인관계에 현저한 질적 개선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감각명상은 스트레스와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에게는 필요불가결한 생활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상법의 실습에 있어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일에 임하는 사람의 자세가 가장 기본적 요인이

되듯이 이 명상법도 그것을 사용하려는 사람의 자세와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확실한 명상법이라도 사용자의 신뢰와 신념이 없으면 소용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이 명상법이 우리들의 생체조직의 체계와 기능에 기반을 둔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것임에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와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인스턴트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현대인의 타성적 심리습관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자기제어와 자기관리의 훈련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이만큼의 세월동안 육체를 경시해온 결과 몸이 상당히 경직되고 둔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되돌리기는 불가능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또 체질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경우에는 명상의 효과, 즉 몸속의 변화를 보다 일찍 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훈련---하루도 빠짐없이---이야말로 이 명상법의 풍부한 결실을 체득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하루만 물을 안주면 시들해집니다. 우리들 속에서 가꾸고자 하는 이 의식의 나무도 꾸준한

정성과 실습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실습을 했을 때 3주를 전후하여 몸속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되고, 더욱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생체조직 속에 감추어진 쾌감의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물질주의, 기계화, 비인간화로 치닫는 현대문명 속에서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이 명상법은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고 사랑해 온 창조자들로부터 주어진 귀중한 선물입니다.

“시계는 시계공만이 그 사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명상테이프는 유명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직접 주문하고자 하시는 분은 먼저 명상테이프 값을 도서출판 메신저(02-536-3176)로 신청해주시고, 대금은 우체국온라인으로 송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이와  
협의하여  
인지생략

# 천재정치

---

4판 발행 / 2004년 12월 13일

지은이 / 클로드 V. “라엘”

펴낸이 /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

번역 /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

펴낸곳 / 도서출판 메신저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빌딩 8층 641호

전화 / 02-536-3176

FAX / 02-594-3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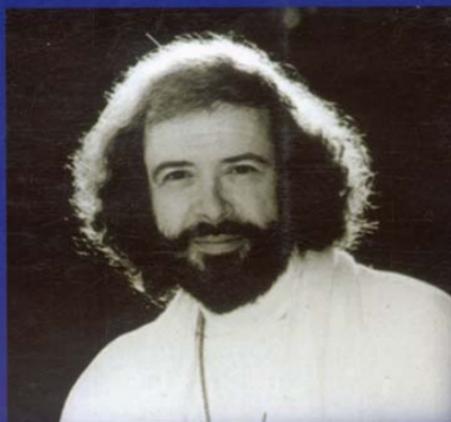
우체국온라인 / 012740-0012660 메신저

출판등록 / 16-195(1988.8.1.)

ISBN / 89-85192-04-3

---

※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 연락처: 02-536-3176



##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두 번 되풀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민주주의가 최선이 아니다.  
모든 세포가 자기주장을 한다면 몸은 생존할 수 없다.  
오직 지성을 갖춘 사람들만이  
인류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통선거나 여론조사는 세계를 통치하는데 유효하지 않다.  
통치하는 것은 예견하는 일이지  
양떼와 같은 민중의 반응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선택적 민주주의인 천재정치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

지성이란 상식 또는 창조적 재능과 비교할 수 있다.  
지성이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그것들이 어느 틀에 잘 맞는지를 결정하는 능력이다.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지금까지의 정부가 예견하지 못했고  
따라서 통치할 능력이 없음이 입증되었다.  
그것은 일반대중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자를 고르는데 사용될 기술상의 잘못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보통민주주의는 선택적 민주주의인 천재정치로  
대체되어야 한다.

선택적 민주주의는 지성이 뛰어난 사람들을 권력의 자리에  
앉히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천재정치를 말한다



ISBN 89-85192-04-3